

지명유래지

고 성 군 K o s ō n g

高城郡은 三國時代에는 高句麗의 疆域에 속해 있다가 三國統一 이후 新羅北部 邊疆을 이루었다. 景德王 16년 (757) 九州五小京을 設置함에 따라 高城·杆城縣으로 分割되어 溟州에 屬했다가 高麗 成宗 15년(995) 地方 行政區域을 10道로 分割하게 되자 轄方道에 編入 豐岩, 杆城 등으로 불리웠다. 朝鮮 高宗 31년(1894) 府制實施로 江陵府에 隸屬되었다가 합병후인 1914년 3월 高城郡을 杆城郡에 合併, 9개면을 管轄했고 1919년 5월에 杆城郡을 廢止하고 竹旺, 土城 2개면을 襄陽에 넘기고 高城郡으로 改稱했다. 8·15해방후 북한치하에 들어갔다가 1953년 7월 杆城, 巨津, 縣內, 水洞 등 4개면이 收復地區 臨時行政措置法에 따라 大韓民國 治下가 되었다. 1963년 1월 襄陽郡에 속했던 竹旺, 土城이 高城郡에, 1978년 7월 土城面 沙津里와 章川里가 東寧市에, 1973년 巨津面이 稷山으로, 1979년 杆城面이 稷山으로 昇格되어 現在 2개읍 3개면을 管轄하고 있다.



우리고장의땅이름들

지명유래지

고성군문화원

발 간 사

우리의 문화 유산은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입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풍광이 배어난 우리 고장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류의 삶을 영위해 온 유구한 역사가 면면히 살아 있는 고장입니다. 하지만 외침과 6·25동란 등 수많은 전란 거듭하면서 우리의 귀중한 문화 유산이 많이 파괴·훼손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우리의 선조가 언제부터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 왔는지조차 정확히 아는 사람 역시 많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내고장 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바로 알고 그동안 잊혀졌던 전통 문화유산을 찾아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유산을 제대로 지키고, 가꾸는 일에 앞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잊혀져 가는 우리 땅의 모습을 세세히 수록하여 지역사를 잇는 소중한 사료(史料)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계속 발전 보완하여 우리고장의 모습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후세에 고장의 모습을 바로 알리는 귀중한 자료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서 발간에 참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8년 4월 23일

고성군문화원장

고성군 지도





고성군기

1. 상단의 흰색은 군민의 순박성을 표시하고
1. 하단의 청색은 동해의 청담한 물결을 상징하며
1. 중앙원내는 세계적인 명산 금강산으로서 군민의 드넓은 긍지를 상징함.
1. 1977. 2. 7 고성군 조례 제 476호로 제정.



고성군화 : 해당화

1. 포기가 많은 것은 상부상조의 협동심
1. 줄기의 가지는 불의의 침입을 방어하는 굳은 군민의 의지
1. 백사장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은 군민의 끈기와 슬기
1. 다양한 종류는 군민의 무궁무진한 지혜.



고성군목 : 은행나무

1. 수령(樹齡)은 군의 오랜 역사와 외침에 굴하지 않는 군민의 기상
1. 수세(樹勢)는 군민의 무궁한 번영을 상징.



고성군조 : 까치

1. 인간과 항상 가까이 살고 있는 길조로 평화롭고 온화한 군민의 생활상과,
1. 순하며 강인한 군민의 의지를 상징.

일 러 두 기

1. 수록내용은 '고성군지(高城郡誌)'와 1997년 11월 발행된 '우리고장의 지명유래', 1998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발행 '문화유적총람'의 내용을 이기 또는 보완(참고)하였고, 제세 및 실도 구성은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2.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서술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한문(漢文)을 () 병서하였다.
3. 인용된 자료의 표기는 자료명, 권수, 연월일 또는 논문은 게재지명, 호수, 발행처, 발행년도, 면수의 순으로, 저서는 저서명, 권수, 발행년도, 발행처의 순으로 하였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으며, 연대의 표기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또 왕조가 강조될 때는 고호(高號)나 연호(年號) 다음 ()속어 서기를 표기하였다.
5. 단위의 표기는 미터법에 의한 부호를 사용하였다. 한자의 음(音)과 훈(訓)이 다를 경우 []안에 표기하였다.
6. 본서에 수록된 통계는 199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고성의 노래

Marct
경쾌하게

김두은 작사
박시 작곡

1 2 3

진진함 부동로 령사봉 바스하 라남늘 보들덜 마이티 자남호 라거트 난춘는 이말구 몸춤춤

순정난하 지간죽 호정을 백바들 조람일 치소하 립리는 순유우 박구려 한한네 마역꿈 을사을

동명립 해심모 의러아 고아이 기름죽 배다하 는운자 우화우 리포로 의가손 보는으 물길로

(후렴) 고 성 을 사 랑 하 자 고 성 을 빛 내 자

정 다 운 내 고 향 우 리 의 고 성

— 목 차 —

발간사	3
일러두기	8
I. 군(郡)의 연혁	13
II. 간성읍 연혁과 리별현황	19
하리(下里)	23
신안리(新安里)	25
동호리(東湖里)	32
봉호리(蓬壺里)	38
상리(上里)	39
간촌리(艮村里)	44
교동리(校洞里)	46
해상리(海上里)	49
광산리(廣山里)	54
어천리(魚川里)	61
장신리(長新里)	67
담동리(塔洞里)	72
금수리(金水里)	76
진부리(陳富里)	82
홀리(乾里)	84
담원리(塔峴里)	92
III. 거진읍 연혁과 리별현황	95
거진리(巨津里)	98
자산리(慈山里)	114
봉평리(蓬坪里)	116
화포리(花浦里)	120
완당리(源塘里)	124
송정리(松亭里)	128
용하리(龍下里)	131
산북리(山北里)	133

송강리(松江里)	135
석문리(石門里)	137
초계리(草溪里)	139
오정리(梧亭里)	142
대대리(大岱里)	144
송죽리(松竹里)	148
반암리(盤岩里)	150
송포리(松浦里)	154
거진읍 주민 이거주마을 유래	158

IV. 현내면 연혁과 리별현황	163
대진리(大津里)	167
철통리(鐵桶里)	173
초도리(草島里)	174
죽정리(竹亭里)	180
산학리(山鶴里)	185
화곡리(禾谷里)	188
마달리(馬達里)	191
마차진리(麻次津里)	193
명파리(明波里)	196
배봉리(培峰里)	201
현내면 주민 이거주마을 유래	202

V. 죽왕면 연혁과 리별현황	205
오호리(五湖里)	208
향목리(香木里)	212
가진리(加津里)	214
공현진리(公峴津里)	216
오봉리(五峯里)	220
삼포리(三浦里)	224
인성리(仁亭里)	235
구성리(九城里)	240

아촌리(野村里)	244
송암리(松岩里)	246
문암리(文岩里)	248
죽왕면 주민미거주 마을 유래	253

VI. 토성면 연혁과 리별현황	255
천진리(天津里)	258
청간리(淸澗里)	263
아야진리(我也津里)	266
금화정리(錦花亭里)	273
교암리(橋岩里)	274
백촌리(柏村里)	278
운봉리(雲峰里)	280
학아리(鶴也里)	283
도원리(桃院里)	287
성대리(城宅里)	294
용암리(龍岩里)	298
신평리(新坪里)	302
인흥리(仁興里)	311
성천리(星川里)	317
원암리(元岩里)	319
용촌리(龍村里)	322
봉포리(鳳浦里)	326
편집후기	329

1. 군(郡)의 연혁

1. 군(郡)의 연혁

고성군은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영토에 속해 있다가 삼국통일 이후 신라복부 변강(邊疆)을 이루었다.

경덕왕 16년(759) 구주오경주(九州五京州)를 설치함에 따라 고성현(高城縣)으로 분리, 명주(溟州)에 속하였다가 고려 성종 14년(995) 지방행정구역은 10도로 분할하게 되자 삭방도(朔方道)에 편입, 풍암(豊岩), 수성(守城)등으로 분리되었다.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으로 인한 부제설치로 강릉부에 예속되었다가 합방 후인 1914년 3월 고성군을 간성군에 병합, 9개면(郡內, 竹田, 梧堡, 高城, 新北, 水洞, 土城, 縣內)을 관할하였고, 1919년 5월 15일 간성군(杆城郡)을 폐지하고, 죽왕면과 토성면 등 2개면을 양양(襄陽)에 넘기도 고성군(高城郡)으로 개칭하였다. 8.15해방 후 북한치하에 들어갔다가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간성(干城), 거진(巨津), 현내(縣內), 수동(水洞) 등 4개면이 수복지구 임시조치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되었다.

1963년 1월 1일 양양군에 속했던 죽왕, 토성이 고성군에 편입, 6면을 관할, 1973년 7월 토성면의 사진리(沙津里)와 장천리(章川里)가 속초시로 편입되어 장사동(章沙洞)이 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에 의거 거진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에 따라 간성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어 현재 2개읍 4개면의 행정구역을 형성했다. (수동면은 미수복지구 양)

고성군을 포함하여 18개시군을 관할 하고 있는 강원도의 명칭은 부족국가(部族國家)의 형태를 이루고 있던 삼고시대에 예국(濊國)과 역국(貊國)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그후 한무제(漢武帝)의 침입으로 위만조선(衛滿朝鮮)의 70년 통치가 끝나자 소위 한사군(漢四郡)으로 분할 되었다. 당시 강원도의 서부는 낙랑군(樂浪郡), 북부는 일둔군(臨屯郡)으로 양분되어 고구려가 남하할 때까지 400년간 통치되었다.

BC37년에 주몽(朱蒙)이 졸본부여(卒本扶餘)에서 건국하고 그 세력이 확장 됨에 따라 강원도 북부가 고구려의 강성(疆城)에 편입되었다. 신흥 신라(新羅)도 본도의 남부까지 판도를 넓히 오고 백제(百濟)도 원주지방까지 뻗쳐와 도내에는 장구한 기간을 두고 삼국의 작축장이 되었다. 그후 신라는 나(羅)·당(唐)연합으로 고구려와 백제를 차례로 멸망시켜 통일신라의 대업을 성취 함으로써 현 강원도는 완전히 신라의 권속에 들어가 춘천지방은 수악주(首若州), 삼척(三陟), 강릉(江陵)은 하서주(河西州), 원주는 북원경(北原京)이라 이르고 신라지방 제도인 오경주(五京州)의 일부로 통치되었다.

8세기경 신라의 세력이 쇠퇴하여 후삼국이 일어남에 따라 궁예(弓裔)의 도읍지로 철원이 선택되었고 이어 고려 태조가 국토를 통일함과 더불어 도읍을 개경(開京)으로 옮기게 됨으로써

고려의 한 지방으로 다시 전락하게 되었다.

고려 6대 성종 14년(995)에 이르러 지방행정 구역을 10도(道)로 분할 하면서 삭방도(朔方道)를 설치하게 되었을 때 함경남북도와 영동일대 및 영서의 춘천이북 등지가 편입되었는데 19대 명종 8년(1178)에 삭방도(朔方道)를 폐지하고 함경남도와 강릉일대를 구분하여 연해명주도(沿海溟州道)라 칭하고 춘천, 철원 등지를 구분하여 춘천도(春川道) 또는 동주도(東州道)라도 개칭하였다.

24대 성종 4년(1263) 연해명주도(沿海溟州道)는 강릉도(江陵道), 동주도(東州道)는 교주도(交州道)라고 개칭하였다가 27대 충숙왕(忠肅王) 원년(1314)에 이르러서 교주도(交州道)를 준양도(准陽道)라 개칭 하였으며 31대 공민왕(恭愍王) 5년(1356)에 강릉도(江陵道)를 강릉삭방도(江陵朔方道)로 고쳤다가 32대 우왕(禔王) 14년(1388)에 강릉삭방도에서 삭방도를 갈라내고 교주도(交州道)와 합하여 교주강릉도(交州江陵道)라 부르고 강릉에 수부(首府)를 두어 관할하게 되었고, 태도(他道)에 속해 있던 평창군(平昌郡)을 편입시켰다. 34대 공양왕(恭讓王) 3년(1391)에 철원, 영평(永平)등을 떼어서 경기도(京畿道)로 이속시키고 다시 강릉도(江陵道)라 하였다.

조선이 건국되자 태조4년(1395)에 비로소 강원도(江原道)라 칭하고 17대 효종, 19대 숙종 때 한때 원양도(原襄道) 또는 강양도(江襄道)라 불렀으나 얼마 안되어 다시 강원도(江原道)라는 구명(舊名)으로 복칭(復稱)하였으며 감영(監營) 소재지를 원주에 두고 도장관(道長官)으로서 감사(監司) 또는 감찰경직수군병마절도사(監察兼職水軍兵馬節度使)를 주영(駐英)케 하였다.

좌영(左營)을 춘천에 중영(中營)을 횡성에, 우영(右營)을 삼척에 각각 설치하고 순찰사(巡察使)가 1년간 시기를 정하여 순찰하면서 삼영(三營)과 각부 군현(郡縣)의 재판을 감독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말엽 26대 고종황제 25년(1888) 춘천에 유수군(留守郡)을 두면서 강원도와 그 관할을 달리 하였으나, 고종 32년(1895)에 도(道)을 폐하고, 춘천 유수군(留守郡)을 춘천부로 승격시키는 동시 관내를 양분하여 강릉과 춘천에 관찰부(觀察府)를 두어 관할하게 하고, 원주, 영월, 평창, 정선의 4군(郡)을 충주관찰부(忠州觀察府)로 이속하게 하였다.

이듬해에 부(府)를 폐지하고 13도(道)를 두자, 다시 강원도(江原道)로 환원하게 되면서 강릉을 합하여 관찰사(觀察使)를 춘천에 두고 원주이하 4군(郡)까지 예속 시켰으며 융희(隆熙) 4년(1910)에 흡곡군(歙谷郡)을 통천군(通川郡)에 병합하여 25군(郡) 237면(面)이 되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되면서 신관제(新官制)가 실시 됨에 따라 관찰사를 도장관(道長官)으로 개칭하고 1914년 3월에 평해군은 울진군(蔚珍郡)에 고성군은 간성군(杆城郡)에, 금성군(金城郡)은 금화군(金化郡)에, 안학군(安峽郡)은 이천군(伊川郡)에 각각 병합 되었고,

1919년 5월에 다시 간성군은 고성군(高城郡)으로 개칭 되었다. 그리고 동년 관계 개정에 의하여 도장관(道長官)을 도지사(道知事)로 개칭하는 동시에 21군 3읍 172명을 관할하게 되었다. 1931년 4월 1일 제령(制令) 제12호로 읍면제(邑面制) 시행에 따라 춘천면(春川面), 강릉면(江陵面)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었다.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38선을 경계하여 이북·이남으로 분단 되면서 11군 82읍면은 소련이 점주한 이북으로 넘어가고 1부 10군 91면은 미군정하(美軍政下)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되면서 미군정 시대의 행정구역은 그대로 답습하여 오다가 1954년 10월 21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이 공포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11월 15일에 철원, 금화를 11월 17일에는 고성(高城), 양양(襄陽), 양구(楊口), 화천(華川)등 38선 이북의 7개군 3읍 37면을 수복하게 되었다.

1955년 9월 1일 강릉, 원주 두읍(邑)이 시(市)로 승격되었으며, 1961년 5월 16일 혁명에 의하여 행정 체계를 개편, 1961년 10월 1일을 기해 종전의 읍·면 대신, 군(郡)을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함에 따라 읍면장은 군수의 보조기관이 되었다.

1979년 4월 7일 대통령령 제9409호로 군청소재지 또는 이에 준하는 8개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묵호읍(墨湖邑)과 북평읍이 합병되어 동해시(東海市)로, 그리고 1981년 7월 1일 황지·장성읍이 태백시로 1986년 1월 삼척시 승격에 따라 강원도는 7개 시(市) 15개군(郡) 22개읍(邑) 97개면(面)을 관할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1995년 1월 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루어져 춘천시(春川市)와 춘천군(春川郡), 원주시(原州市)와 원주군(原州郡), 강릉시(江陵市)와 명주군(冥州郡), 삼척시(三陟市)와 삼척군(三陟郡)이 각각 통합하여 춘천시(春川市), 원주시(原州市), 강릉시(江陵市), 삼척시(三陟市)로 개편 됨에 따라 강원 도내에는 7시(市) 11군(郡)으로 되었다.

고성군 연혁과 행정구역

○연혁

군청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하리 12번지

년 대	연 령
1894.	· 강원도 고성군(高城郡) 및 간성군(杆城郡)이 없음
1895. 5. 26	· 칙령(勅令) 제98호(1895. 5. 26공포) 강릉부(江陵府)에 귀속
1896. 8. 4	· 칙령(勅令) 제36호(1896. 8. 4공포) 강원도 고성군을 간성군으로 복귀
1914. 3. 1	· 부령(府令) 제111호(1913. 12. 21공포) 고성군(高城郡)이 간성군(杆城郡)에 병합

년 대	연 령
1915. 5. 15	· 부령(府令) 제88호(1919. 5. 9공포)간성군(杆城郡)을 고성군(高城郡)으로 개칭
1945. 8. 15	· 공산치하에 들어감
1954. 10. 21	· 법령(法令) 제350호(1954. 10. 21공포) "수복지구임시행정조직법" 시행에 따라 휴전선 이남 4개면(杆城, 巨津, 縣內, 水洞)을 편입
1963. 1. 1	· 법령(法令) 제1178호(1962. 11. 21공포) 양양군 죽왕면(竹旺面), 토성면(土城面)을 고성군(高城郡)에 편입 (6개면)
1973. 7. 1	· 대통령령 제6542호(1973. 3. 12공포) 토성면 사진리(沙津里), 장천리(章川里)를 속초시로 편입
	· 대통령령 제6543호(1973. 3. 12공포) 거진면(巨津面)을 '읍(邑)'으로 승격
1979. 5. 1	· 대통령령 제9409호(1979. 4. 7공포) 간성면(杆城面)을 '읍(邑)'으로 승격 (2읍 4면)

○ 행정구역

읍 면	면 적 (km ²)	가 구	인 구	(洞里長數) 동리수	관 찰
2읍4면	663.91	11,818	38,161	(126) 88	
杆城邑	179.95	2,386	7,724	(31) 17	· 下, 新安, 東湖, 蓬壺, 上, 良村, 校洞, 海上, 廣山, 魚川, 張新, 塔洞, 仙遊堂, 金水, 屹, 陳富, (塔峴)
巨津邑	76.75	3,621	11,602	(28) 17	· 巨津, 慈山, 花浦, 源唐, 松亭, 龍下, 山北, 松江, 石門, 草溪, 梧亭, 大堡, 松竹, 盤岩, 松浦, 蓬坪, (冷泉)
縣內面	92.61	1,387	4,516	(16) 17	· 大津, 鐵桶, 草島, 竹亭, 山鶴, 禾谷, 馬達, 麻大津, 明波, 塔峰, (猪津, 劍藏, 泗川, 松峴, 大津, 松島津, 明湖)
竹旺面	50.07	1,697	5,498	(18) 12	· 五湖, 香木, 加津, 公峴津, 五峰, 仁亭, 九城, 三浦, 野村, 松岩, 文岩, 麻佐
土城面	120.46	2,727	8,821	(33) 17	· 天津, 清調, 我也津, 橋岩, 柘村, 雲峰, 鶴也, 桃院, 龍岩, 新坪, 人興, 星川, 元岩, 龍村, 鳳浦, 城堡, 錦花亭
(水洞面)	144.07			8	(新堡, 外河, 德山, 沙龍, 姑味城, 新炭, 沙泉, 土院)

※ 주(註): ()내서는 주민 미거주지역임.

II. 간성읍 연혁과 리별현황

1. 간성읍 연혁과 리별현황

1910년 한일합방으로 간성군에 편입되었다가 1919년 고성군에 예속 됐다.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38선 이북에 위치하여 북괴치하에 들어갔다.

1954년 10월 21일 법률제350호인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 시행에 의거 간성면으로 된 후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에 따라 간성읍으로 승격됐다.



간성읍사무소 전경

간성읍은 현재 읍리출장소를 두고 있었으나 1998년 행정기구 축소에 따라 폐쇄 되었다. 법정리는 17개 행정리는 33개리 116개 반을 형성하고 있다.

남·북천 유역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된 전형적인 농축 경영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간성읍의 총면적은 179.95㎢ 이다. 그리고 주민 미거주지역인 수동면의 면적은 144.07㎢이다.

간성읍·면장 <수복이후>

대 수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비 고
1	咸泰運	1954. 2. 26	1961. 6. 21	面長
2	朴在炯	1961. 6. 29	1961. 8. 22	"
3	金元錫	1961. 10. 1	1961. 10. 31	"
4	李熙吉	1961. 11. 1	1964. 6. 9	"
5	全應弼	1964. 6. 10	1967. 2. 26	"
6	咸庚奉	1967. 3. 1	1969. 4. 8	"
7	李鎮健	1969. 4. 9	1969. 5. 13	"
8	咸演益	1969. 5. 14	1974. 2. 5	"
9	黃甲龍	1974. 2. 6	1974. 2. 11	"
10	金鎮健	1974. 2. 12	1975. 12. 31	"
11	咸正根	1976. 1. 1	1977. 6. 10	"
12	黃甲龍	1977. 6. 11	1980. 3. 24	邑長 (1979. 5. 1 승격)
13	南正鉉	1980. 3. 25	1982. 10. 6	"
14	咸正根	1982. 10. 7	1983. 6. 6	"
15	金大鉉	1983. 6. 7	1993. 6. 30	"
16	金 澈	1993. 7. 1	1998. 3. 31	"
17	崔永旭	1998. 4. 1	현재	"

간성읍 마을 명칭변천표

읍	면	별	리	명
~1914년까지	현재 및 8.15해방시			
郡内面			上, 中, 下, 西門外, 安心, 新城, 天下井, 水洞, 防築洞, 金龍洞, 龍淵洞, 金章, 屹里, 塔洞, 仙遊室(15個里)	
海上面			良村, 校洞上, 校洞中, 校洞下, 內於吞(魚龍), 滿山, 釜洞, 淨土(漚天), 八音(礪溪), 廣坪, 五金川, 丁坪, 林川, 陳富, 塔峴, 長田, 新坪(17個里)	
	杆城面		下1·2, 新安1·2·3·4, 東湖1·2, 蓬壺, 上1·2, 良村, 校洞, 海上1·2, 廣山1·2·3·4, 魚川1·2·3, 長新1·2, 塔洞1·2, 金水 ※ 屹里出張所 地域: 陳富, 屹1·2·3(31個里)	
	杆城邑		下1·2, 新安1·2·3·4·5·6, 東湖1·2, 蓬壺, 上1·2, 良村, 校洞, 海上1·2, 廣山1·2·3·4, 魚川1·2·3, 長新1·2, 塔洞1·2, 金水, 陳富, 屹1·2·3(33個里)	



간성시가지 전경

◆ 33개 행정리별 현황 ◆

○ 하리(下里)

△ 위치 : 동쪽으로 신안1, 2리 남쪽으로 신안2리와 연결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금수리, 그리고 북쪽으로 상1, 2리와 이웃하고 있다.

△ 마을유래 : 현 무재국 주위에 못이 있다고 하여 속칭 연당(蓮塘)마을이라고도 하였다. 옛날에는 현재의 읍사무소 자리에 현청(縣廳)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선시대에는 간성군청이었다. 그후 읍사무소 소재 마을로 하리라 부르다 1973년 하1, 2리로 분할 됐다.

옛날엔 정안 마을 삼정(三井), 사지(四池), 오목(五木)이 있었는데, 하1리에 그중 2정, 3지가 있었다고 한다. 1994년도에 군청앞 우물 1개소를 정비했다.

○ 하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96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50명, 여자 128명으로 총 270명이 된다.

출신도별 가구를 보면 강원도가 80가구로 가장 많고, 경상도 6가구, 서울 4가구, 전라도 3가구, 경기도 2가구, 기타 1가구로 비교적 강원도 중심의 문화가 형성된 지역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는 김씨 30가구, 박씨 10가구,李씨 9가구, 韓씨 5가구, 黃씨 5가구 崔씨, 張씨 각각 4가구, 成씨, 全씨, 文씨, 尹씨 각각 3가구, 鄭씨, 林씨, 洪씨, 徐씨가 2가구씩, 魚씨, 南씨, 呂씨, 權씨, 孫씨, 吳씨, 延씨, 趙씨, 劉씨가 각각 1가구로 되어 있다.

직업별 가구현황을 보면 농업이 7가구로 적은 편이고, 상업이 39가구, 사무직 등 기타 가구가 50가구나 된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1.3km, 밭 0.8km이다. 마을내 가축은 닭 55마리, 산양 10마리, 돼지5마리가 있고, 농기계는 경운기 1대, 양수기 11대 등이다.

전기는 1966년 5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55년 7월에 보급되어 최근 급격한 전화보급 확대로 96대가 보급됐다.

시내버스는 1979년 3월에 운행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는 속초와 대진를 잇는 버스가 하루 108회 왕래하고 있어 교통시설은 매우 편리하다.

문화시설로는 TV 104대, 냉장고 42대, 자가용 42대, 오토바이 58대, 오디오, 비디오 등 문화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마을회관은 1975년 5월에 총액 1백32만원을 들여 건평 15평으로 아담하게 신축했으나 주민이용도가 낮아 현재는 일반인에게 입차하여 주고 있다.

종교는 10가구가 기독교, 천주교가 18가구, 불교가 31가구 등이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4년 3월 우체국 뒤의 마을안길을 포장 하였고, 1981년 4월에는 공설 운동장 임구의 74m 되는 길을 총1백55만원으로 포장했다. 그리고 1982년 4월에 길이 40m 의 천주교 진입로를 총소요액 1백47만원을 들여 포장했다.

○ 하2리

△ **마을유래** : 원래 간성을 시내는 상, 중, 하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행정수복과 함께 군청 소재지가 되었다가 인구증가와 구역확장으로 인해 중리(中里)를 하1,2로 구분하게 됐다. 군청소재지인 수구마을로써 '삼정(三井) 사자 오목(五木)'의 하나인 은행나무 한 그루(수령 약700년)와 우물 2개소가 남아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88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35명, 여자 151명이 된다. 출신도를 가구별로 보면 강원도 74가구가 가장 많고, 서울과 경상도가 각각 5가구, 경기도 2가구, 충청도와 전라도가 각각 1가구씩으로 되어 있다.

가구별 성씨 분포는崔씨 20가구,李씨 13가구,金씨 10가구,黃씨 8가구,姜씨 6가구,尹씨 4가구,朴씨 3가구,咸씨,鄭씨,韓씨,權씨,孫씨,劉씨 각각 2가구씩,魚씨,南씨,文씨,呂씨,吳씨,趙씨,徐씨,沈씨,陳씨,元씨가 각각 1가구씩, 기타 2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11가구, 상업이 21가구, 기타 56가구로 사무직과 상업이 주된 생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0.2ha, 밭 4.5ha로 점차 경지면적이 줄고 있는 상태이다.

전기는 1966년 5월에 처음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55년 7월에 들어와 비교적 빨리 보급되어 현재는 87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가 94대, 냉장고 87대, 자가용 63대, 오토바이 54대 등을 보유하고 있고 기타 비디오 및 오디오, 에어컨의 보유 숫자가 늘어나는 등 문화수준이 굉장히 높아 가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5년 2월에 총 1백32만원을 들여 15평의 아담한 공동이용시설을 마련했으나 최근 활용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종교는 13가구가 기독교, 8가구가 천주교, 16가구가 불교, 기타 2가구 등으로 신앙을 갖고 있다.

1976년 4월에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총67만원을 들여 길이 200m의 도로를 포장하고, 보도블럭을 설치했다. 매년 하수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계속 되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

이 조성되고 있다.

◎ 신안리(新安里)

△ **위치** : 동쪽으로 동호리가 있고, 서쪽은 하2리, 남쪽의 금수리, 북쪽의 상2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 **마을유래** : 통일신라 이후 간성현이라는 곳이 생긴 후 새골짜기라는 골짜기와 한심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었는데 조선 중엽, 즉 300년 전에 마을 명을 정할 때 섬내의 안심리(安心里)와 성외의 신성리(新城里)의 머릿자를 따서 신안리(新安里)로 부르게 됐고, 그후 인구가 점점 늘어 1955년경부터 행정구역을 신안1, 2, 3, 4리로 구분 하였다가, 1994년 아파트 신축을 계기로 신안5, 6리로 추가 분할 됐다.

신안리에는 속칭 시장마을(신안1리), 시장 번두리(신안2리), 정거장 거리(신안3리), 남천세거리(신안4리)등이 있다.

○ 신안1리



신안리 마을전경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115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97명, 여자 207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93가구로 가장 많고, 경상도 8가구, 경기도와 전라도가 각각 4가구씩, 이북지역이 6가구, 기타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 현황은李씨 16가구, 김씨와朴씨 각각 12가구,鄭씨,黃씨, 손씨 각각 7가구,尹씨 6가구,崔씨 5

가구, 咸씨 4가구, 張씨, 韓씨, 南氏, 權씨, 吳氏 각각 3가구씩, 林氏, 趙氏, 高氏, 邊氏, 魚씨가 각각 2가구씩, 孫氏, 徐氏, 劉씨가 각각 1가구, 기타 11가구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을 보면 농업이 5가구인데 비해 상업은 69가구, 기타가 41가구로서 대부분이 시장을 중심으로 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6.7ha와 밭2.8ha, 임야 3ha이다.

가축의 사육현황은 한우 35두와 개 2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기구는 경운기1대가 있다.

전기는 1965년 6월에 들어 왔으며, 시내버스는 1979년 3월부터 운행 됐다.

전화는 수동식이 1955년 7월에, 그리고 자동식이 1984년 10월에 각각 설치되어 현재 248대의 전화가 보급됐다.

문화시설로는 TV 150대, 냉장고 200대, 자가용 118대, 에어컨 15대, 오토바이 46대 등 소득이 높아짐에 따른 문화수준이 대폭 향상되고 있다.

종교는 불교가 50가구, 천주교 20가구, 기독교 15가구가 밀고 있어 과반수이상의 마을주민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1979년 3월에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장 안에 위치한 소하천을 지원금 69만원과 주민 부담 1백22만원 등 총1백92만원을 들여 정비했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 초하루에는 율놀이들, 보름에는 대보름 달맞이놀이를 각각 즐겼는데 대보름 전날은 여름날이라 하여 아침 밀떡 입어나 닭은 콩을 해물어 먹으며 일년내 부스럼 없기를 빌었다. 또한 밤을 아홉 그릇 먹고 나무 아홉짐을 하는 날이라고도 했다.

○ 신안2리

△ **마을유래** : 1955년 수복후 신안1,2리로 분구되었는데 2리는 시장 번두리와 남천(세거리) 그리고 정거장 일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다가 1973년 3리(정거장)와 4리(남천)로 분리되었고 현재 6개반에서 1985년 6월1일 군인아파트 건립으로 1개반이 증설됐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173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288명과 여자 287명으로 모두 575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89가구로 가장 많고, 경상도 32가구, 전라도 16가구, 충청도 13가구, 서울 11가구, 경기도 8가구, 이북 3가구, 기타 1가구로 구성됐으나 비교적 인구가 많이 잦은 편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는 김씨 43가구, 이씨 30가구, 박씨 14가구, 최씨 9가구,鄭씨와 南씨,趙씨가 각각 6가구씩, 조씨가 5가구, 咸씨와 吳씨, 宋씨가 각각 4가구씩, 洪씨와 許씨, 孫씨, 尹씨가 각각 3가구씩, 林씨와 張씨, 權씨, 徐씨, 姜씨가 각각 3가구씩 魚씨와 車씨, 기타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5가구, 상업이 69가구, 기타가 99가구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3.2ha, 밭 1.3ha이다. 농기계는 경운기가 1대이다.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7두와 개 9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전기는 1966년 5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55년 7월에 보급되기 시작하여 최근 급속한 통신 발달로 전화가 159대 보급되어 있다.

문화시설은 TV 1백89대, 냉장고 189대, 에어컨 21대, 자가용 145대, 오토바이 65대의 오

디오와 비디오 등 수준 높은 문화시설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 자가용과 오토바이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비교적 생활이 윤택한 편이다.

마을회관은 1972년 5월13일 83㎡(25평) 세멘버들스라브 건물로 지어졌다.

종교현황은 불교가 31가구, 기독교 28가구, 천주교 18가구, 기타 8가구로 많은 주민이 신앙을 갖고 있다.

마을의 건물은 단독주택이 82동, 아파트 72동, 연립주택이 4동이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8년 3월에 금수천 하구의 120m되는 소하천을 지원액 88만원과 자부담 17만원 등 총소요액 1백5만원으로 정비 했고, 그보다 앞서 1977년에는 150m 길이의 하교길을 56만원을 들여 포장했다. 1978년에는 총 1백75만원으로 56m의 마을 진입로를 포장했다. 또 1994년 9월에 1백59만원의 사업비로 시장주변 주차장 하수도 복개공사를 마쳤다. 1991년 9백4만원을 들여 하수도 295m, 맨홀 5개소를 설치했다. 1991년10월에 3천만원을 들여 하수도 117m에 합저막스를 설치했다.

1992년 마을안길 67m를 확포장 했고, 동년 12월에 7백3만원을 들여 하수도 171m를 정비했다. 1994년 3월 1천7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80m 포장과 총관 20m를 설치했다.

△ 마을신앙 : 음력 1월 3일날 안심동 끝짜기의 성황당에서 성황당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옛날부터 신안리(新安洞과安心洞)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안의 평안함과 후손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각호당 쌀 1되씩을 거두고 재지머리 1개를 준비하여 술과 떡을 빚어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 의식절차 : 집사 1인을 마을총회에서 결정하여 먼저 축을 고한 다음 마을 사람의 이름을 고한 뒤, 마을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순으로 진행된다.

△ 산, 나무 등의 전설

• 무자동(無子洞) : 지금의 신안1리7만 (군인아파트 5동임구)이 무자골로 전해지고 있는데 옛날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 백호 등 (지금의 농촌지도소) 뒷 산에 와서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정성을 드렸다고 한다. 그곳에 예지당(禮智堂)이라는 집이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그곳에 자리가 확인되고 있다.

△ 정자(亭子) 및 루(樓) 전설

• 영관정(迎官亭) : 동문밖 옛날의 구 우시장 자리에 있었던 정자로 신관사 또 푸임서나 귀빈이 순시 할때 유숙하던 곳으로 주변의 송림이 매우 아름다웠고 큰 소나무가 정자 앞에 2그루 있었다고 하여 이송정(二松亭)이라고 불렸다고 전해진다.

△ 마을 명소현황

• 전봉사 포교당 : 현재 전봉사의 포교당이다. 한국전쟁으로 전봉사가 소실되고 이후 이 지역이 민간의 출입통제 지역이 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전봉사의 법맥을 이었다고 한다. 대

웅전과 요사채 2동 및 수마제원이 있는데 속초 보광사에 재신 노보살께서 대웅전을 지었다고 한다. 전봉사의 입구에는 근래에 세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문이 있는데 기둥은 시멘트로 하였고, 지붕에는 기와를 얹었으며 맞배지붕이다. 이 문 좌우로 담을 둘렀고 한편 기둥에는 “전봉사 조제암 포교당”이라는 입간판이, 오른쪽 기둥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입간판이 걸려 있다. 대웅전은 정면 3칸(213cm×320cm×213cm), 측면 3칸(213cm×213cm×213cm) 크기이며, 팔작지붕의 다포집으로 덩빙주초와 약간의 치석을 기한 4각 초석을 사용하였다. 법당내에는 근년에 조성된 석가여래 1구와 탕화 6점이 있는데, 본존불의 후불탱에는 “물기이구팔팔연 신축십이월 일강원도고성군전봉사후불성신증정 면각인점한일이봉안(佛紀二九八八年辛丑十二月日江原道高城郡乾願寺後佛聖神衆御面各一點銀仍以泰安)”의 묵서가 있다. 그리고 지름 49cm, 두께 35cm의 불과 근년에 조성한 높이 72cm의 소형 1구가 있다. 입구에는 51cm×30cm×29cm 크기의 석주 1기가 있는데, 지름 16cm의 ‘만(卍)’자와 자경 86cm의 금강저가 양각되어 있다. 후불탱화가 1961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 이 건물도 그 때를 전후하여 세워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문화재연구소, 1998, 문화유적총람

○ 신안3리

△ 마을유래 : 1974년 행정구역 개편시 신안2리에서 나뉘어진 마을로 과거 일정시대에 기차역전이었던 곳이라 하여 속칭 정거장 마을이라 불리우고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86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49명, 여자 172명으로 모두 321명이 된다.

출산도를 가구별로 보면 강원도가 51가구로 가장 많고, 경상도 13가구, 전라도 8가구, 충청도 7가구, 서울 4가구, 경기도 3가구로 되어 있다.

가구별 성씨 분포는 김씨 27가구, 손씨 10가구,李씨 7가구, 林씨 6가구, 鄭씨 5가구, 尹씨 4가구, 朴씨 3가구, 檀씨와 趙씨, 宋씨가 각각 2가구씩, 韓씨, 南씨, 黃씨, 權씨, 吳씨, 徐씨, 沈씨, 成씨, 高씨, 裴씨, 梁씨, 姜씨가 각각 1가구씩이며, 기타 6가구로 되어 있다.

직업별 가구원황은 농업이 18가구, 상업이 2가구이고 기타 직종이 60가구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21ha, 밭이 4ha, 임야 17ha이다. 농기계는 경운기가 16대, 트랙터 3대, 이앙기 9대, 콤팩트 2대, 전조기 3대, 양수기 7대, 분무기 17대, 기타 2대 등이 있다.

가축사육현황은 한우 56두와 토끼 2두, 개 39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가옥의 형태는 단독주택이 52동, 아파트가 32동이 있다.

전기는 1965년부터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2년 5월에 개통돼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전화 보급이 계속 늘어나 현재 85대의 전화가 보급되어 있다.

문화시설은 TV가 89대, 냉장고 82대, 자가용 13대, 오토바이 16대, 에어컨 2대를 비롯해 첨단 가전제품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6년 3월에 총사업비 1백32만원으로 들어 15평으로 신축 했다.

종교는 불교 4가구, 천주교 4가구, 기독교 1가구가 신앙을 갖고 있다.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1980년 3월에는 지원액 1백50만원과 자부담 75만원 등 총 3백25만원의 사업비로 마을 앞의 150m의 농로를 개설 했다.

1994년 6월 1천1백50만원 사업비로 30m의 옹벽설치 공사를 마쳤고, 1994년 10월 2백84만원의 사업비로 신안3리와 동호천을 잇는 동호천 하상1.98km를 정비했다. 1991년 11월 1천2백만원을 들여 하수도 18m, 포장 41.2m를 포장했다.

△ **마을신앙** : 해마다 음력 1월 3일에 마을 뒷산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옛날부터 산을 위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하여 마을 뒷산의 성황당에 산신을 모셔 놓고 제사를 지냈던 것이며 온 가족의 평온과 건강을 비는 주문을 산신께 빌던 제천행사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 **의식절차** : 제사일 3일 전에 생기맞는 도가집을 정하여 갯상 차릴 준비를 시키고, 성황당을 깨끗이 함은 물론 각 가정마다 결전한 마음으로몸을 단정히 하고 제사일을 맞는다.

의식은 축관, 제관, 집사가 함께 성황당에 올라가 초혼은 이장이 하고 고령자 순으로 잔을 드린 후 마을을 대표하여 소지를 올리고 축을 고하며 각 가정이 모두 소지를 올리는 순으로 진행된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 대보름에는 밤을 지어 나이대로 술가락에 담아 달을 보고 단친후 점을 하는 달맞이를 했으며 음력 3월 3일에는 산신제를 지내고 단오날과 6월 6일에는 유두놀이를 즐겼다.

○ 신안4리

△ **마을유래** : 마을 남쪽에 있는 냇가를 끼고 마을로 들어가는 삼거리 중심이라하여 속칭 남천세거리로 불리며 신안2리에 계속 편입되었던 관계로 모든 행정 및 사업이 뒤떨어지다가 197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신안4리로 분구됐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97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62명, 여자 157명으로 모두 319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80가구로 가장 많고, 경상도가 6가구, 충청도와 서울이 각각 3가구씩, 경기도와 전라도가 각각 2가구씩, 이북이 1가구로 강원도 중심의 문화가 형성된 지역이다.



신안4리 한옥단지 전경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 26가구, 이씨 10가구, 박씨와鄭씨 각각 5가구씩, 최씨와 禹씨, 張씨가 각각 4가구씩, 咸씨, 金씨, 孫씨가 각각 3가구씩, 洪씨, 權씨, 尹씨, 趙씨, 朱씨, 申씨가 각각 2가구씩, 林씨, 韓씨, 黃씨, 劉씨, 安씨, 白씨, 池씨가 각각 1가구씩, 기타 11가구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23가구, 상업이 2가구, 기타 72가구로 농업과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28ha, 밭 4.7ha, 임야 8.5ha이다. 주요농기구는 경운기 11대, 트랙터 2대, 양수기 8대, 이앙기 1대, 콤바인 2대, 분무기 14대 등이 있다.

가축사육현황은 한우 24두와 개 46마리가 있어 농가수에 비해 가축사육이 적은 편이다.

전기는 1970년 9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1년 6월에 설치되기 시작하여 현재 70대의 전화가 보급되어 있다.

문화시설은 TV68대, 냉장고 70대, 자가용 15대, 오토바이 14대, 비디오, 오디오 등 가전제품이 계속 늘어나 소득향상과 함께 문화수준이 높아 졌다. 주민들은 대부분 취사는 가스에 의존하고 난방은 유류보일러에 의해 생활하고 있다.

종교는 불교가 24가구, 기독교가 7가구, 천주교 2가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9년 3월에 지원금 3백6만원과 주민부담 1백50만원 등 총사업비 4백56만원을 들여 길이 180m되는 마을입구의 농로를 개설 했고, 1985년 10월에는 총 사업비 1천41만원으로 마을 뒷길에 교량을 가설했다. 1991년 9월 4백4십만원을 들여 하수도에 90m의 휴관을 부설했다. 1994년 5월 7백4만원으로 71m의 마을안길을 포장했다.

△ **마을신앙** : 수목 이후부터 마을의 신변을 보호하는 뜻으로 해마다 음력 1월 3일 신안리 125번지에 위치한 성황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 **의식절차** : 제수를 준비하는 집(도가집)을 미리 정하고 그 집에서는 3일 동안 외인 출입을 금하며 음식을 준비한다. 음력 1월3일 밤 11시에 제사를 지내며 동네사람중 부락의 책임자, 고령자순으로 1가정씩 소지를 올리는데, 찬을 부으며 한해동안 가정의 신수를 기원하고 절을 올린다. 제사를 마치고 당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합제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소지가 잘 올

라 갔는지에 따라 그해의 실수를 정쳐 본다.

소지 올리는 사람은 연장자중 덕이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하여 집안에 외인출입을 금한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 대보름에는 달맞이를 하였고 단오날에는 그네뛰기, 그리고 6월에는 쓰레셋춤이와 유두놀이로 즐겼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미니리 : 유래는 정확히 모르나 옛날 이 지방에는 갈등, 양양 등지에서 온 사람이 머슴을 많이 살았는데, 그들이 김매기 할때 불려온 것이 현재까지 전하여 오나 지금은 손김매기를 하지 않아 부르지 않고 있다.

〈가사내용〉 매어주게 매어주게 이논배미 매어주게

중지생선 해다줍세 빨리빨리 매어주게

○ 신안5리

△ 마을유래 : 아파트 건립 등으로 늘어난 가구여 따라 1994년 신안1,2,3,4리에서 분할되어 신안5,6리로 분구 됐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206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372명, 여자 232명으로 모두 604명으로 비교적 인구가 많은 산쟁 동리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81가구로 가장 많고, 전라도가 39가구, 경상도 35가구 충청도 26가구, 경기도 15가구, 서울 7가구, 기타 3가구 등으로 비교적 다른지방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을 보면 숲씨가 44가구, 후씨가 22가구,朴씨와 權씨가 각각 18가구씩, 鄭씨와 尹씨 각각 7가구씩, 吳씨 6가구, 咸씨와 林씨가 각각 5가구씩, 洪씨와 權씨가 각각 4가구씩, 張씨와 韓씨, 趙씨가 각각 3가구씩, 魚씨와 南씨, 徐씨 각각 2가구씩, 姜씨와 文씨, 孫씨, 劉씨, 郭씨 등 기타 50가구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 4가구, 상업 14가구, 기타 188가구로 군인가구 들 타직종 세대가 많다.

△ 일반현황 : 정지면적은 논 1.3㎞, 밭 0.8㎞이다. 농기계는 2대가 있고,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4두, 개 8마리가 있다.

전기는 1970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현재 203대가 보급되었다.

문화시설은 TV 215대, 냉장고 204대, 자가용 114대, 에어컨 2대, 오토바이 3대, 비디오와 오디오, 가전제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가스렌지에 의한 취사와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을 갖추고 편리

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기독교가 14가구, 천주교가 13가구, 불교가 12가구, 기타 3가구 등이다.
가옥의 형태는 단독주택이 61동, 아파트가 137동으로 군인 아파트가 최근 늘어났다.

○ 신안6리

△ **마을유래** : 아파트 전립 등으로 늘어난 가구에 따라 1994년 신안1,2,3,4리에서 분할 되어 신안5,6리로 분구 됐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192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296명, 여자 246명으로 모두 542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49가구로 가장 많고, 경상도와 충청도가 각각 12가구씩, 전라도 8가구, 서울 5가구, 경기도 3가구, 이북 1가구, 기타 2가구 등으로 비교적 강원도적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을 보면 김씨가 36가구,李씨와朴씨가 각각 22가구씩,權씨가 14가구, 咸씨 11가구, 全씨 10가구, 趙씨 6가구, 鄭씨와 張씨, 南씨, 尹씨가 5가구씩, 林씨와 洪씨, 權씨가 각각 4가구씩, 劉씨와 宋씨가 각각 3가구씩, 文씨와 洪씨, 孫씨, 徐씨, 安씨, 殷씨가 각각 2가구씩, 魚씨가 1가구, 기타 20가구가 있다.

직업별 가구는 농업이 7가구, 상업이 69가구, 기타 116가구가 분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2.4ha, 밭이 1.1ha이다. 농기구는 경운기 4대, 알수기 3대, 이앙기 2대, 분무기 4대 등이다. 가축은 한우1두와 닭 4마리, 개 8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66년 5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55년 7월에 들어오기 시작해 최근 통신기기의 발달로 급격히 늘어나 현재 201대의 전화가 보급됐다.

문화시설은 TV 198대, 냉장고 205대, 자가용 121대, 에어컨 24대, 비디오와 오디오 보급이 늘고 있고, 각종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구가 가스렌지등을 이용하여 취사를 하고 있고 난방시설은 유류보일러를 이용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는 기독교가 24가구, 불교 21가구, 천주교 18가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138동, 아파트가 47동이다.

◎ 동호리(東湖里)

△ **위치** : 동쪽으로 동해를 바라보고, 서쪽은 신안리, 남쪽은 함목리, 북쪽은 봉호리를 접하

고 있다.

△ **마을유래** : 옛날부터 전해내려 오는 구전에 의하면 지금부터 약300년전 당시 선조들이 마을을 개척할 때 갈대가 너무나 무성히 자라 있는 갈대밭이었기에 갈벌이라 칭하였다가 1880년대에는 신선이 놀다가는 아름다운 마을이라 하여 왕곡면선유리(仙遊里)로 개칭했으며 한일합방 전, 즉 1940년대 이후로 동쪽에 호수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동호리(東湖里)로 다시 개칭하여 전해내려 온 것이 오늘에 이른다.

마을은 구석말과 넘어말로 구분하는데 구석말은 3반의 산일 구석에 위치하여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워졌고, 넘어말은 마을회관 앞 마을안길을 중심으로 길 건너에 있는 마을을 넘어말이라 칭했다.

또한 농경지는 수삼 넘어 알 무논, 아래들, 새내들, 벌미동산, 염전밭 등으로 구분되어 불리우는데, 그 명칭마다 각각 유래와 이유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수삼넘어는 본마을에서 봉호쪽으로 가는 논골을 칭하며 이조 중엽 복천강이 수구 너머로 흘러 내려 물이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였다해서 그렇게 불리워졌다.

또한 도로에서 마을 안쪽을 마을 앞에 있는 무논이라 하여 알 무논, 동호2리쪽으로 내려오는 들어래 남천강과 금수천이 남천으로 흐르지 않고 마을 쪽으로 흘러 농경지 양세천 사이에 있었다 하여 새내들이라 각각 칭했고, 넓은 들 사이에 1km정도의 임야가 우뚝 솟아 있는 부근을 벌미동산이라 불렀으며 마을 하구안에 들어있는 들이라 하여 아래들이라 칭했다고 한다. 한편 염전밭이란 이름은 왜정때 백사장에다 한자 정도의 진흙을 깔고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었다 하여 바닷가 주변을 염전밭이라 불리워오고 있다.

바다와 접해 있는데도 마을에 어촌제가 없고 주민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주민들은 20여년 전만해도 바다에는 고기의 출현을 감시하는 살수(고기를 특별히 잘 보는 사람)가 있어 농사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고기가 나타났다는 신호를 하면 모두 달려가 벌치 등의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농한기 때 합일이 없어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바닷가에 모여 고기를 기다렸고 자연스럽게 어울려 술을 마시게 돼 농사일 마지 등한시 하는 경향이 생겼다. 농사일과 고기잡이 모두 제대로 되지 않자 마을회의를 통해 고기잡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지금까지 고기잡이를 하지 않고 있다.

○ 동호1리

△ **마을유래** : 속칭 뿔갈벌, 선유리라고 하며, 동쪽의 호수라 하여 동호리(東湖里)라고 한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51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84명, 여자 79명으로 모



동호리 전경

두 163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37가구, 경상도가 8가구, 서울 3가구, 충청도가 2가구, 전라도 1가구가 오래도록 농사를 지으며 태대로 살아온 가구가 많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金씨가 9가구, 李씨가 7가구, 黃씨가 6가구, 金씨가 5가구, 朴씨와 尹씨가 각각 4가구씩, 崔씨와 宋씨가 각각 3가구씩, 咸씨와

趙씨가 각각 2가구씩, 鄭씨와 南씨, 文씨, 河씨, 方씨, 梁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34가구, 상업이 1가구, 기타 16가구로 전형적인 농촌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37ha, 밭이 10ha, 임야 5.8ha이다. 농기계로는 경운기가 23대, 트랙터가 11대, 양수기가 20대, 이앙기가 19대, 전조기가 6대, 동력예취기가 4대, 분무기가 23대, 기타 7대이다. 가축은 한우 80두, 닭 18수, 개 37마리 등 비교적 많이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다른 농촌마을 보다 비교적 빠른 1964년 2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4년 8월에 개통돼 최근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47대의 전화가 보급됐다.

문화시설은 TV 51대, 냉장고 50대, 자가용 17대, 오토바이 24대의에도 비디오와 오디오 등이 많이 보급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목재 또는 연탄에서 탈피해 가스화 유류보일러에 의존하고 있다. 마을내에는 가로·보안등이 모두 5개가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5년 3월 6m의 동호리 선유교를 지원금 1백30만원, 자부담 65만원 등 총사업비 1백95만원으로 가설했다. 또 1985년 3월에는 총사업비 2백30만원으로 마을안길 107m를 포장했으며 1995년 5월에는 2천80만원을 들여 마을진입로 5.1a포장했다. 한편 1996년 7월에는 2억2천5백만원을 들여 상습침수 피해농경지에 대한 배수장2동, 배수로 설치 등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했다.

△ 마을 특산물 : 1970년도부터 방풍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참여농가는 모두 10가구로 연간 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방풍은 특히 중풍환자의 한약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 마을신앙 : 옛날에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었기 때문에 성황당에 산신제를 올리면 모든 질병과 마을의 재앙을 물리친다고 믿었다. 매년 임춘일에 대치성이라 불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 의식절차는 제주, 헌관, 축관, 동의 4명으로 행하여지는데 제주는 산에서 불을 달고어 만드는 일을 한다. 제물로는 화소머리나 돼지(김정돼지) 숯늬를 쓰게 되며 그밖에 떡, 과일,

밭 등이 필요하다.

마을 세시풍속으로는 정월 명월을 중심으로 율놀이가 성했으며 4월에는 화친회, 6월에는 유두놀이를 즐겼다.

△ 회다지 노래

〈가사내용〉 어 ~ 헤이여 달구

태백산 낙맥이 짙 멀어져서 이산이 기복이요

에 ~ 헤이여 달구

이산을 쓰면 3년만에 아들을 낳으니 임금님이요,

밭을 낳으면 열녀이니라.

에 ~ 헤이여 달구

이산을 쓰면 3년만에 부자가 되고.....

△ 구전되어 오는 민요 : 땀치잡이 노래를 흥타령

〈가사내용〉 아랫 갈벌 웃갈벌 때래지 푸는 소리

시집못간 처녀 총각이 안달이 났구나.

△ 마을 명소현황

• 신사유적 : 마을입구 산능선 부근에서 유거문과 손불무늬, 점열무늬 등 다양한 무늬의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토기들이 다량 출토되어 B.C 3천년~2천년 경부터 사람들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동호리 유물산포지 : 유물산포지는 간성읍내에서 동호리 마을로 들어가는 두개의 도로 중 북편의 도로를 따라 약 1.9km 들어가면 민가들의 집락(뒷갈벌)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마을입구 민가와 텃밭지역으로 신석기시대 유물들이 산재하여 있다. 유적의 주변 환경은 남쪽으로는 넓은 들과 남천이, 북으로는 북풍과 서풍을 막아줄 수 있는 해발 약 40m 높이의 야산과 북천이, 동쪽으로는 약 500m거리에 동해가 있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 동호리 유적 역시 죽왕면 문암리 신석기 유적과 같이 야산을 등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사호(死湖)가 되어버린 석호(錫湖)지역에 있다는 공동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 지역 신석기인들의 생활양식의 일면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증거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동호리 신석기 유적은 아쉽게도 민가들의 재건축등으로 그 원형이 훼손되어 가고 있어 시급한 보존대책이 아쉬운 곳이다. 이 유적에서 수습한 유물은 빗살무늬 토기 조각들과 어방추 1점, 돌도끼 1점이 있다. 토기 조각의 문양은 어골문, 격자문, 압인문 등이 있다. 특히 어골문은 횡으로 시문한 것인데 깊이가 1cm정도로 깊어 그 문양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문화재연구소, 1998, 문화유적총람

○ 동호2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51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81명, 여자가 110명으로 모두 191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51가구로 강원도의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손씨가 11가구, 이씨가 8가구, 鄭씨와 南씨가 각각 6가구씩, 조씨가 5가구, 崔씨와 朴씨가 3가구씩, 咸씨와 趙씨, 印씨가 각각 2가구씩, 張씨와 黃씨, 申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분포는 농업이 42가구, 기타가 9가구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57ha, 밭이 5.3ha, 임야가 1.7ha이다. 농기계는 경운기가 28대, 트랙터가 13대, 양수기가 23대, 이앙기가 23대, 콤바인이 6대, 전조기가 8대, 동력에 취기가 9대, 분무기가 27대, 기타 8대 등 농업이 점차 기계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가축은 한우가 116두, 개가 31마리로 비교적 다른 마을에 비해 소를 많이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64년 2월 동호1리와 함께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4년 8월에 개통되어 현재 51대를 보유해 각가정 마다 전화가 모두 보급되어 있다.

문화시설은 TV가 57대, 냉장고가 51대, 자가용 17대, 오토바이 29대와 최근 비디오와 오디오의 보급이 급격히 늘었으며, 케메라는 각가정 마다 있다.

취사와 난방은 종전의 목재 또는 연탄에 의존하던 것이 최근 LPG가스와 유류보일러를 이용하고 있다. 마을에는 가로·보안등이 6개소가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5가구, 기독교가 4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비교적 적은 가구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1971년 3월에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금 24만원, 자부담 53만원을 들여 길이 20m의 교량을 가설에 이어 1972년 3월에는 소하천 23m를 총사업비 37만원을 들여 정비했다. 1994년 7월 30만원의 사업비로 남천 하상정비를 했고, 1995년 4월 1천4백2만원의 사업비로 하수도 100m를 설치했다. 1994년 7월에는 7백30만원을 들여 비스승강장 1동(5m)과 석축 21.5m를 설치했다. 1995년 12월에는 2억7백만원의 돈을 들여 상습침수농경지에 대한 배수장과 방수제를 설치하는 한편 1996년 7월에는 2억2천4백만원의 돈을 들여 배수장 2동, 배수로, 방수제 3조, 배수문 2조를 각각 설치했다.

△ **마을신앙** : 매년 임춘비 마을의 평온을 빌기 위해 마을 뒤 천제터에서 지내는 천제사가 있다.

- 의식절차 : 당일 새벽 1시에 마을의 남자중 생지를 맞추어 부정이 없고 몸가짐이 올바른

사람으로 재주를 봉한 뒤, 주, 과, 포를 마련하여 오후 5시경 재를 지내는 데 먼저 서낭지신, 시가지신, 산천지신의 삼신을 모셔놓고 마을 가구주의 연령 순으로 소지를 올리며 전강과 평안 함을 빈다.

• 산신제 축문

유세작년사 감소고우

성황지신위, 산천지신위, 시귀지신의 부귀왕 년도 신년을 맞이하여 존신각위에게 지성봉제 하오니 왕림하여 음감하옵소서.

천지는 동서남북이요, 국호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은 팔도로 분별하니 362주로다.

영동구읍되니 강원도 고성군 산성읍 동호2리 좌청룡 우백호전이라 주좌후에는 현모로다.

명당대전에 달을 모아 소원 성취 하올적에 신은 경제질 소성요, 서산에 해는 무주강산으로 들어가고 동정 추월 맑은 달은 천심벽궁에 걸려있고 남두육성 좌을 들고 북두칠성 돌아오니 천재수는 잔잔하고 초목금수 잠이든 때 경이침침 삼경이다.

천지지만 만물지중 인생이 귀귀하와 성제명왕도 봉태산이니 이번 적덕도 여산여해오니 신년에 신덕을 입자고 봉수 발원하나이다. 산해내 관성으로 화를 면하고 수와 복을 구하오니 유와일이요 다신인이내로 춘순포 형동하여 저무역다.

하왜지며 추진하여오 귀수봉선에 신지성제디오 고위 신련 신원 임춘을 백하여 지성 봉도하오니 명령신령은 감히 응소하사 금년 신수와 수화도적 관제구실 제액을 영구히 소명하시고 호포소상을 양여 명하시니 가축우마 농잠서적과 백골이 풍동하시어일이도영세 시명케하여 추식기를 기원 발원으로 봉축하옵나이다.

△ 회다지 노래 : 전해 내려오는 노랫말

〈가사내용〉 세상천지 만물지중애 인생이 최고이노라, 불쌍하고 가련하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제 가면 언제오나

저승실이 많다지만 대문 밖이 저승일세.

일가친척 많다지만 어느친구 등잔가리.

명사십리 해당화야, 너는 새봄이 오면 다시 피지마는 인생이라

한번가면 언제 다시 돌아오나.

여보시오 사자님네, 잠깐 쉬어 갑시다.

들어본책도 아니하고 쇠뿔치를 휘두르며 가자고 재촉하네.

여보시오 사자님네, 배가고파 못가겠소. 앵똥살똥 모은저산 쓰고가나

먹고사나 불쌍하고 가련하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제 가면 언제오나.

◎ 봉호리(蓬湖里)

△ 위치 : 간성읍 소재지로 부터 약 2km 떨어진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거진읍 송죽리, 서쪽은 거진읍 대대리, 남쪽은 신안4리, 동쪽은 동호리와 동해로 연결돼 있다.



봉호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마을의 고을명칭은 골탄, 버덩탄, 뽕밭골, 방죽골, 수재밭골, 안장골, 돌고지, 아랫들, 개까, 굴구며 매 등의 여러가지 속칭으로 불리워 왔다.

고기(古記)에 의하면 옛적에는 왕국면에 속하였던 때도 있었다. 봉호리(蓬湖里)로 '호(湖)'자를 마을 이름에 썼으나 지형적으로 봉호리동 앞에 산이 가로막혀 중간의 길이 동리 앞을 줄

라매게 되어 마치 병마개울 줄라면듯한 형국이 되어 봉호리(蓬湖里) : '호(湖)'자는 병마개 '호'자임)명이 고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가구 및 인구 : 총 가구수는 28가구이다. 인구는 남자 42명, 여자 41명으로 모두 83명이다. 출신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28가구 모두 강원도로서 대대로 이곳에 뿌리를 둔 토박이 농가들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 해주가 9가구,尹씨가 7가구, 魚씨가 6가구, 崔씨가 2가구이며, 金씨, 李씨, 咸씨, 安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25ha, 밭이 7ha, 임야가 30ha이다. 농기제는 경운기 19대, 트랙터 7대, 콤바인 8대, 이앙기 14대, 양수기 1대, 진조기 3대, 동력예취기 6대, 분무기 17대, 기타 3대 등 농기계 보급이 크게 늘어 농업이 점차 기계화 되어 농촌의 일손을 덜어 주고 있다.

가축은 한우 62두와 토끼 50마리, 오리 2수, 개 26마리 등을 사육하고 있어 축산을 통한 농외소득을 늘려나가고 있으나 한우가격의 기복이 심하여 농가의 어려움도 있다.

1968년 4월 마을에 전기가 들어 왔으며, 1982년 6월에 전화가 개통된 이래 최근 통신시설 발달로 28가구 전체에 전화가 보급돼 있다.

문화시설로는 TV가 27대, 냉장고 28대, 자가용 10대, 선풍기 28대, 세탁기와 가스렌지, 비디오와 오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급격히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1977년 4월에 총사업비 96만원을 들여 전령 20명의 아담한 마을회관을 신축했다.

1963년 1월에는 처음 자본금 5만원으로 시작한 마을 공동구판장이 자산액이 1백만원이 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된 적도 있으며, 마을전체 가구가 가입한 마을금고는 건립당시인 1965년 1월만해도 자본금이 10만원이었으나 그 자산액이 5백만원에 이른 적도 있어 근면, 성실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종교현황은 불교를 믿는 가구가 26가구이다. 마을에는 9개의 가로·보안 등이 있다.

1978년 2월에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길이 570m의 도수로를 총사업비 1백21만7천원으로 정비했다.

1982년 3월에는 폭 4m, 길이 150m의 도로를 사업비 5백23만6천원을 들여 확포장했고, 또 이듬해 3월에는 길이 285m, 폭 3m의 도로를 7천45만3천원을 들여 포장해 5월에 완공했다. 1991년 3백만원의 돈을 들여 취입보 29m를 정비했다.

△ **마을신앙** : 옛날부터 천태 내려오는 마을 성황제를 성황당에서 지내는데, 마을의 평화와 주민들의 건당을 기원하기 위하여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등 1년에 2번 지낸다.

• 의식절차는 헌관 1명, 제관 2명, 축관 1명으로 구성된 제주가 행하게 된다.

△ **희다지 노래** : 전문은 아니지만 마을에서 불리워지는 희다지의 가사

(가사내용) 세상천지 판물지중에 인생이 최귀이노라

물쌍하고 가련하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제 가면 언제오나, 저승길이 멀다지만 대문밖이 저승입세.

△ **산, 바위, 나무 등의 전설**

• 장사바위 : 속칭 아랫들 공동묘지 한쪽에 약 3평 정도의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장사의 발자국이 있다하여 장사바위라 불리워졌다.

◎ 상리(上里)



상리 마을전경

△ **위치** : 동쪽으로 하1, 하2리 서쪽으로 간촌리와 교동리로 연결되어 있고, 남쪽에는 금수리, 북쪽으로 지진읍 대대리가 이웃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오랜 옛날부터 소농들이 용기중기 모여 사는 골짜기라 하여 속칭 소농골이라 불렀으며 지금은 쇠동골이라고 부르는데 1973년 행정구역 분할로 현재의 상1리 2반이 됐다. 또 간성 시가지 주변에 있던 읍성의

서쪽 물이 현재 고성중·고교로 가는 국도상에 있었다고 하여 그 서쪽 물 일대를 서문덕이라 불렀으며 지금은 그 일원이 상1리 4반이 됐다.

○ 상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113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67명, 여자 169명으로 모두 336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90가구, 경상도와 전라도, 서울이 각각 5가구씩, 충청도 4가구, 이북 2가구, 경기도와 기타 각 1가구씩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손씨가 26가구, 주씨가 17가구, 최씨가 12가구, 손씨가 6가구,尹씨 5가구, 咸씨와 林씨, 權씨가 각각 4가구씩, 박씨와 鄭씨, 安씨가 각각 3가구씩, 張씨와 南씨, 洪씨, 洪씨, 趙씨, 宋씨가 각각 2가구씩, 韓씨와 魚씨, 文씨, 吳씨, 劉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18가구, 상업이 11가구, 기타 84가구로 다양한 직종을 가진 가구들이 분포하고 있다. 토박이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16ha, 밭이 1ha이다. 농기계로는 경운기 9대, 트랙터 2대, 이앙기 6대, 콤바인 1대, 분무기 9대, 기타 1대 등이다.

가축은 한우가 8두, 개가 4마리, 꿀벌 4동등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비교적 빠른 1965년 2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55년 9월에 비교적 일찍 개통돼 최근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103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97대, 냉장고 93대, 자가용 70대, 오토바이 67대에에도 비디오와 오디오, 세탁기 등이 많이 보급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목재 또는 연탄에서 달피워 가스와 유류보일러에 의존하고 있다. 마을내에는 가로·보안등이 모두 16개소가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7가구, 기독교가 5가구, 천주교가 2가구 있다.

가옥의 형태는 단독주택이 78동, 연립주택이 2동이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84년 7월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고성중·고교까지의 150m 진입로를 확포장 했다. 1995년 5월에 500㎜혼관 60m와 맨홀 3개의 하수도를 7백51만5천원의 사업비로 설치했다.

△ **마을신앙** : 구전에 의하면 약100여년 전부터 주민들의 신변보호와 액운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력 1월3일 자정에 마을제사를 지내 왔다고 하는데, 원래 지금의 경찰서 뒤의 굴밭나무에서 지내다가 충혼탑 건립으로 현재는 고성중·고교 뒷산에서 지내고 있다.

• **의식절차** : 제수를 준비하는 집을 도가집이라 하여 미리 정하고 그집에서는 3일동안 외

인의 출입을 금한다. 집집마다 쌀과 돈을 건어 도가집에 주면 그것으로 재수를 준비하여 재사를 지내는데 쌀과 돈을 낸 사람(가구주)의 생일과 이름을 부르며 소지를 올려 1년의 신수를 기원한다.

재사를 마친 당일 아침에는 마을 주민들이 도가집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고 소지가 잘 올라갔는가에 대해 서로 얘기를 하는데, 소지 올리는 사람은 연장자중 덕이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한다.

△ 마을 세시풍속 :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율늘이와 함께 귀불늘이를 한다.

△ 속칭이름

- ① 원상리(元上里) : 성안에 위치한 마을 ② 용연동(龍淵洞) : 일명 쇠뚝골
 ③ 서문밖(西門外) : 상리고개부터 중고등학교 가는 길
 ④ 방축골(防築洞) : 중고등학교 마을 ⑤ 천하정(天下井) : 공설운동장 주변마을

• 상1리 선정비군(善政碑群) : 춘천지법 고성등기소 동편 언덕에 위치한 충혼탑 앞에 고성군일대에 산재하여 각종 개발 등으로 훼손의 열려가 있거나 민가에서 빨래판 등으로 사용되던 비석을 1985년도 문화원과 고성군 문화공보실에 의해 이곳에 모아 놓았다. 총 18기가 있는데 대부분 1900년대를 전후하여 세운 것들이다. 그중 송정연간(崇禎年間)(1628~1644)에 건립한 2기의 비석이 있는데, 하나는 군수 김시보(郡守金侍保)의 불망비(不忘碑)이고, 다른 하나는 군수 김상복(郡守金尙菴)의 선정비(善政碑)이다. 전자는 화강암재를 사용하였으며, 갖석이 없고, 크기는 116cm×56cm×25cm이다. 비 전면에 “군수김공시보 대사권학영세 불망비(郡守金公時保待士勸學永世不忘碑)”라 하였고, 뒷면에는 “송정후상월일립(崇禎后三月日立)”라 하였다. 후자의 비석도 화강암재를 사용하였는데, 고깔형대의 갖석을 비신과 일체로 조식하였다. 크기는 112cm×52cm×23cm이며, 비의 전면에 “군수김공상복선정비(郡守金公尙菴善政碑)”라 하였고, 후면에는 “송정이년기사오월초삼일립(崇禎二年己巳五月初三日立)”이라 적었다.

고성군 역대 군수 선생안에 따르면 김시보는 1712-1713년간에, 김상복은 1624-1629년간에 각기 고성군수를 지냈다고 한다.

【참고문헌】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문화재연구소, 1998, 문화유적총람

○ 상2리

△ 마을유래 : 구전에 의하면 옛날 람씨가 처음으로 상리에 입주 정착할 때부터 간성시가지의 중심지로 뒷부분을 상리, 중간부분을 중리, 그리고 남천쪽을 하리라 불렀다고 한다. 또 상

리 서남쪽 골짜기를 방축이 있다하여 방축동이라 하고 지금의 지도소 부근엔 우물이 3개 있던 곳이라 삼정동이라 했는데 용현동이라고도 불렀다. 그외에 1반을 서문밖, 2반을 사직당, 5반을 천정(天井)이라 부르고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212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362명, 여자 341명으로 모두 703명 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68가구, 경상도와 충청도가 각각 12가구씩, 전라도가 8가구, 서울 5가구, 경기도와 이북 각 3가구씩, 기타 1가구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52가구,李씨가 33가구,崔씨와 박씨가 14가구씩, 손씨가 9가구,咸씨와 鄭씨,尹씨가 각각 7가구씩,韓씨와 黃씨,宋씨가 각각 5가구씩,林씨와 劉씨가 각각 4가구씩,魚씨와 南씨,洪씨,權씨,孫씨가 각각 2가구씩,張씨와 文씨,趙씨,宋씨,許씨가 각각 1가구씩, 기타가 31가구 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29가구, 상업이 31가구, 기타 152가구로 토박이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아파트 건립후 사무직종 종사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24.5ha, 밭이 2.3ha, 임야가 34ha이다. 농기계로는 경운기 10대, 트랙터 1대, 이앙기 6대, 콤바인 1대, 분무기 10대, 기타 11대 등이다.

가축은 한우가 10두, 개가 40마리, 닭이 27수등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비교적 빠른 1967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55년 9월에 비교적 일찍 개통돼 최근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205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220대, 냉장고 210대, 자가용 78대, 오토바이 35대, 에어컨 13대 외에도 비디오와 오디오, 세탁기 등이 많이 보급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난방과 취사는 중전 목재와 연탄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가스렌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내에는 가로·보안등이 모두 10개소가 있다.

마을에는 고성중·고등학교가 있고, 고성공설운동장이 자리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35가구, 천주교가 21가구, 기독교가 19가구와 기타 6가구 등 많은 주민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가옥의 형태는 단독주택이 112동, 아파트 100동이 있다.

마을회관은 1973년 4월에 총사업비 1백5만원 가량을 들여 21평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 하였다.

세마을사업으로는 1972년 3월에 총 21만원을 들여 5m의 교량을 가설하였고, 1982년에는 총 8백만원으로 200m의 도로를 포장했다. 1993년 4월에는 1천9백20만원을 들여 간촌-상리간 도로 208m를 포장했다.

△ **마을신앙** : 매년 정월 초하루에 마을 서남쪽 성황당에서 마을의 평안과 무병을 비는 성황

제를 지낸다. 옛날의 설황당은 6.25당시 적군에 의해 소실됐다고 한다.

• 의식절차 : 도가집에서 주, 과, 포 등으로 깻상을 준비하고 제주는 설황당에 봉해 두었다가 당일날 쓰는데, 마을 전기구가 소치를 올려 1년 동안의 안녕과 풍년을 빌었다.

△ 마을 세시풍속 : 해마다 입춘에는 행운과 다복을 비는 뜻으로 대문 밖에 잡귀를 쫓는 문구를 써서 붙이는데 써 붙이는 시간은 밤 12시로 했으며 문구내용은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 했다.

△ 산, 바위, 나무 등의 전설

• 삼정동 : 지금의 저도소가 있는 마을 동북방 0.5km지점에 옛날에는 우물이 3개 있었다 하여 삼정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 마을 명승고적 현황

• 간성읍성(杆城邑城) : 옛 간성군의 치소성(治所城) 역할을 했던 읍성으로 동문과 서문 지역은 7번국도가 지나고 있고 내부에는 군청건물과 간성읍사무소, 우체국, 농협 등 군의 주요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성벽은 동벽 지역, 즉 간성교회 지역에서 북쪽으로 간성시장 뒷편 주차장까지의 부분 약 200m가량이 절단되어 사라졌다. 간성교회 부근의 단애부에서 보이는 성벽의 모습은 자연지형 그대로 성토, 보축하여 이용하였으며, 외곽 쪽으로는 일부 석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의 높이는 약 6~7m정도이다. 이 단애부에서 현재 간성읍사무소 뒷편까지의 남벽잔존부에 대한 길이를 실측한 결과, 일부가 도로로 멸실되긴 하였지만 약 250m 가량은 그런대로 성벽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남벽의 정상부에는 간성 제일교회와 민가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고성군에서 건립한 '간성읍성'이라는 표석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일부는 파사로 채취를 위해 인위적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남벽은 서벽 쪽으로 돌아 현재 고성 전주교회 있는 곳에서 끝나고 있다. 이 성당과 만가들은 정상부를 평탄화시키고 있어 그 형상을 알아볼 수 없다. 서문 쪽에서 이어지는 서벽과 북벽은 대부분 훼손되었고, 특히 고성군청 뒷부분은 주차장 공사로 인해 훼손되었는데 일부 단애부에서 보석혼축의 관측흔이 매우 잘 남아 있다. 관측은 자연의 구릉위에 약 2m 높이로 이루어졌다. 성벽의 윗부분은 모두 기와 조각과 흙으로 쌓여 있는데 보축시에 시와와 흙을 혼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의 북벽 일부와 동벽의 일부에는 외벽과 정상부가 100m가량 잘 남아 있다. 동벽 일부 즉 평지 쪽으로 내려오는 부위에는 석축이 일부 남아 있다. 화강암류의 암괴로 치석하지 않고 외벽 쪽으로 평평한 빈이 나오도록 하여 쌓았는데 길이 약 10m, 높이 약 2m 정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둘레 2,565척(777m), 높이 13척(3m)의 석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 둘레 길이는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석축 뿐 아니라 토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상>고성군 - 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세종대왕실록〉권153 : <〈신증동국여지승람〉권45 : 문화재연구소, 1998, 문화유적총람

◎ 간촌리(良村里)

△ 위치 : 동쪽으로 상2리와 금수리, 서쪽으로는 어천리, 남쪽으로는 탑동리, 그리고 북쪽으로 교동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간촌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지금부터 약 600년전 마을 원님의 부친이 명하기를 용암이라 하였다하여 그후 속칭 구암동(龜岩洞)이라 불리워지다가 약 300년전부터 물흐르는 방향이 간방으로 흘렀다하여 간촌이라 칭하여 현재까지 전해 내려온다. 여기서 간방이라 함은 간촌에서 흐르는 물이 북천(교동리 앞)위로 흘렀던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 가구 및 인구 : 가구는 총 12가구이며, 인구는 남자 19명, 여자 19명 등 모두 38명으로 산업화, 도시화로 농촌인력의 도시유출이 극심하여 가구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출신별 가구별 현황은 강원도가 10가구이며, 근래 경기도 1가구, 서울 1가구 등 적은 가구가 살고 있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손씨가 6가구, 손씨가 3가구, 이씨가 2가구, 郭씨가 1가구가 모여 산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10가구, 기타 2가주로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13ha, 밭 3ha, 임야 80ha이다. 농기구는 경운기 6대, 트랙터 1대, 콤팩트 2대, 이앙기 6대, 양수기 6대, 전조기 2대, 동력예취기 3대, 분무기 6대 등이 부족한 농촌인력을 대신하고 있다.

가축은 한우 14두, 닭 10수, 개 24마리, 꿀벌 3군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0년 7월에 들어 왔으며, 1974년 8월에는 전화가 개통되어 현재 11가구가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2대, 냉장고 13대, 자가용 4대, 오토바이 4대가 있고 각종 가전제품이 발달하여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 목재와 연탄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가스렌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내에는 가로·보안등이 모두 4개소가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 1가구, 기독교 1가구, 천주교 1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1973년 3월에는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임구 12m의 교량을 총사업비 30만원으로 가설했고, 이듬해 4월에는 1반과 2반을 가로지르는 제방 및 소하천 54m로 총10만7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했다. 1994년 4월 3천20만원을 들여 마을길 755m(폭 4m)를 포장했다.

△ **마을 특산물** : 특산품으로 9.9ha정도의 산림에서 송이 버섯을 채취하는데, 11농가가 참여해 연간 4천5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 **마을신앙** : 해마다 음력 3월 3일에 냉장동 서낭에서 성황제를 지내는데, 이는 마을이 아무탈 없이 잘 되기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며 지금부터 20년쯤 전에는 음력 1월15일, 3월 3일, 9월 9일로 1년에 3번 제사를 올렸으나 현재는 3월 3일 삼짇날만 지내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약 100년전 감박제 정상에서 처음으로 성황제를 올렸는데, 인근 부락이 소 우역병 등의 전염병에 시달릴 때, 이 마을만 아무탈 없었기 때문에 그후 계속 전해오며 지냈다고 한다.

• 의식절차 : 주, 과, 포를 준비하여 쟁상에 올리고 초헌은 리장이 드리며, 마을 전주민이 소지를 올려 1년내의 앞일을 점치기도 한다. 참식자는 족욕을 깨끗이 하고 단정한 차림이어야 한다.

△ **마을 세시풍속** : 모내기, 김매기가 끝난 때인 음력 6월 15일 음두놀이를 하는데, 이때에는 마을 전가에서 음식을 마련해 천막을 치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나누어 먹고 춤과 노래를 즐긴다.

△ 산, 바위, 나무 등의 전설

• 용바위 : 마을 동남쪽 5km지점에 위치한 바위로 옛날 그 바위 밑에 깊은 물(소)이 있었는데 그 물을 "용수"라 하여 그 바위를 용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 섬바위 : 마을 서남쪽 8km 지점의 절벽에 바위 2개가 겹쳐져 있는데 밑에서 볼때 그 모양이 버섯(가마니) 모양과 같다 하여 섬바위라고 부른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 모내기나 김매기를 할때 불렀으리라 추측되는 "미나리"라는 노래

(가사내용) 산들산들 부는 바람 모시적삼 입고지고

이논배미 들어서더니 또 한배미 넘어가네.

△ 마을 명소현황

• 냉천 (약수터) : 마을에서 서남쪽으로 3km되는 청수골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3~4백년전으로 추정되는 때에 한 농부가 이 약수터 옆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쏟은 후 부터 약수가 없어졌다는 전설이 있다. 현재도 남아 있는 물이 아주 차서 여름에 부근 농부들이 자주 마신다고 한다.

• 냉장터 : 마을 동남쪽에 위치한 냉장골에 있으며 옛날 피부병 환자가 그 물로 몸을 씻으

면 깨끗히 나아 부너자들이 많이 이용하였다고 한다.

△ **간촌리사지(良村里寺址)** : 약 3,000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지닌 사지로 전역이 논으로 되어있고, 논둑과 산둑에 기와 조각이 산재해 있을 뿐 사찰과 관련된 흔적은 찾을 수 없으나, 1991년 개토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기와조각이 출토된 바 있다. 이 사지에는 석불이 있었다는 기록이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언급되어 있으나, 불사는 현존하지 않고, 다만 간촌리 21번지에 거주하는 전봉덕씨(71세)와 전봉화(80세)씨에 의하면 일제시대 때까지 좌불상이 있었고, 약 30년전에 없어졌다고 한다. 사지의 산 중턱에는 문관석 2기와 부도의 대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묻혀 있다. 문관석 2기 중 1기는 반파되었으나, 또 다른 1기는 코에 약간 손상을 입었을뿐 완전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문관석은 양손을 가슴에 모아 홀을 잡고 있는데, 높이 1m의 크기이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 1942,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문화재연구소, 1998, 문화유적총람

◎ 교동리(校洞里)

△ **위치** : 동쪽으로 거진읍 대대리, 서쪽으로는 광산리, 남쪽으로는 간촌리, 북쪽에 거진읍 초계리를 각각 접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옛날(구한말) 趙씨 가문이 마을을 창설하였다고하여 조동이라 칭하여 오다가 거진읍 대대리에서 향교를 이전 설립하면서 유교를 가르치는 마을이라 하여 교동(校洞)이라 칭하여 전해 내려온다. 마을 행정구역상 3반부터 5반까지를 웃말(개보살)이라 하고 중간위치인 1반에서 2반까지를 중간말(참보살), 그리고 나머지 1반을 아랫말이라 부른다.

△ **가구 및 인구** : 가구는 총 88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44명, 여자 144명으로 모두 288명이다.



교동리 마을전경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80가구, 서울 4가구, 경기도 2가구, 경상도와 충청도가 각각 1가구로 비교적 강원도 문화가 중심을 이룬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손씨 25가구, 成씨가 10가구,朴씨와 손씨가 각각 9가구,李씨가 7가구,崔씨가 4가구,張씨와 孫씨가 각각 3가구씩,鄭씨와 尹씨,劉씨가 각각 2가구씩,韓씨와 魚씨,黃

씨, 權씨, 吳씨, 趙씨, 元씨, 嚴씨, 高씨, 郭씨, 玄씨, 安씨가 각각 1가구의 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76가구, 상업이 8가구, 기타 4가주로 농업이 주된 소득원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60ha, 밭이 6ha, 임야가 35ha이다. 농기계는 경운기 21대, 트랙터 7대, 콤바인 5대, 이앙기 14대, 전조기 2대, 동력예취기 4대, 분무기 58대, 기타 7대 등으로 최근 농기계 보급이 크게 늘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고 있다.

가축은 한우 120두, 닭 252수, 산양 2마리, 오리 122수, 개 56마리, 꿀벌 10군 등 비교적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6년 3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4년 8월에 개통돼 현재 86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1982년 3월에는 시내버스가 개통되어 교통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가 79대, 냉장고 75대, 자가용 22대, 오토바이 31대가 있고, 오디오, 비디오, 세탁기 등 각종 가전제품 보급이 급격히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 목재와 연탄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가스렌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내에는 가로·보안등이 모두 10개소가 있다.

마을회관은 1979년 5월 건평 25평의 새멘백돌스라브 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는 기독교가 20가구, 불교가 10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1984년 12월 새마을사업으로 교동리에서 해상리간의 20m의 교량을 총사업비 1,499만원을 들여 가설했다.

또한 교동리에서 국락암까지 100m의 도로를 사업비 4,539천원을 들여 시멘트 하포장을 1983년 3월 30일에 완공했다. 1995년 교동 도수로 18m를 총사업비 11,120천원을 들여 설치했고, 1993년 9월 7백3십만원을 들여 하수도 95m를 설치했다.

△ **마을신앙** : 해마다 3월 30일(음력)이면 마을의 향교앞 성황당에서 마을의 풍년을 비는 제사를 지내고 온 마을사람들이 깨끗한 옷을 차려 입고 하루를 보냈는데 이를 성황제라 했다. 이장회의 제주 4명이 새벽 1시에 보통 제사와 동일한 절차로 의식을 거행한다.

• 의식절차 : 마을대표 5명(리장포함)이 제주가 되는데, 제일먼저 이장이 초헌을 (3잔 드림), 도가집에서 아헌을(3잔 드림), 측관이 종헌을(3잔 드림)한 뒤, 측관이 축을 고하면 마을의 전가구가 소지를 울리고 끝낸다.

• 축문내용

장원도 고성군 간성을 교동리 성황대신 전에 제목 전설하고 아뢰옵나이다. 잘 되고 못된 것은 성황대신께서 용서하시고 참작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련한 인간은 창호지 한장을 내다보지 못하는 바, 소지종이 한장으로 아뢰오니 박화 등공하여 주시오면 감사히 받아옵기를 아뢰옵나이다.

△ **마을 세시풍속** : 민속의 달, 대보름날, 추석날 등의 명절에 마을사람 22명이 뽕가리, 복,

장구, 피리 등의 악기로 농악대를 구성하여 마을 순회농악놀이를 한다.

특히 설날 농악놀이시는 각 마을을 순회하며 농악놀이 사려로 떡과 술, 음식을 받아서 마을로 돌아와 온 마을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긴다.

△ 속칭이름

- 정지미버덩 : 교동리마을 서쪽에 위치한 들판을 부르는 이름이다.
- 배나무골 : 마을 북쪽현 약 1.5km지점에 있는 골짜기. 옛날 배나무가 많이 산재하였다 하여 배나무골이라 부른다.
- 밤나무골 : 마을 북쪽 1km 떨어진 곳. 지금은 농경지로 조성되어 있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미나리 : 김매기 할매 일꾼들끼리 피로를 잊기 위해 즐겨 부르던 노래

〈가사대용〉 매어주게 매어주게 이논매미 매어주게

아침이슬 만났동무 해지면 이떨이라

지어가네 지어가네 절실참이 지어가네.

모내기때는 '매어주게'를 '심어주게'로 바꾸어 그대로 부른다.

△ 마을 명소현황

• 극락암(極樂岩(전통사찰)) : 서기 945년 고려세종(을사년)때 건봉사 묘적동에 창건했으며 1878년 조선 고종 15년(무인년)에 건물이 전소됐다고 한다. 서기 1882년 조선 고종 19년 사봉진스님이 다시 49칸을 창건 했으나 6.25당시 또 전소되었다. 그후 1956년 간성면광평에 8칸 건물을 신축했다가 1962년 교동리 함박동에 8칸 건물을 이전 신축했으나 1965년 4월 23일 모두 전소되고 말았다. 1965년 7월에 10칸 한옥으로 다시 지었고 1971년 7월 밭당 8칸을 지었다. 또 1974년 6월 새실6칸을 지어 오늘에 이르렀다.

• 간성향교(지방유형문화재 제104호) : 조선조의 행정 편제는 간성군과 고성군이 독립된 행정 구역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다가 1896년 전국을 13도로 편제하면서 통합되어 1919년 고을의 명칭이 고성군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곳에는 간성군과 고성군의 향교가 각각 전립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휴전선 이북의 고성군에 보존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성군 향교조에서 "고성 서쪽 10리에 있다."하여 고성 향교의 위치를 밝히고 있으며, <<관동읍지>>의 고성군 사례대개에서 향교의 규모를 살필 수 있다. 간성 향교는 세종 2년(1420)에 창건된 것으로 파악되며, 그 위치는 성북 용연동으로 확인된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전되어 왔고, 선조 13년(1580)에는 규봉산 기슭으로 이전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중건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으로 향교의 건물은 다시 소실되었다가 1954-1956년에 이르는 시기에 대성전과 동·서재, 그리고 대성문이 건립되었으며, 1960년에 명륜당과 1966년에 동서무가 재건되었고, 1982년에 외삼문이 건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향교의 건물은 소실

되거나 퇴락하여 중전 또는 이전되었지만, 창전 당사에 조성된 위패는 현재까지 봉안되고 있다.

현재 간성 향교는 외삼문을 중심으로 토담벽이 둘러져 있고, 명륜당 앞에는 1987년 대성전 중전을 기념하는 “공부자 묘정비(孔夫子廟庭碑)”가 건립되어 있으며, 건물 배치는 명륜당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동·서재, 대성전, 동·서무로 구성된 문묘가 전후로 배치되어 있다. 1961년 건립된 명륜당의 대공은 김구선·최광수·최주열이며, 전면 4칸 규모의 명륜당은 내에는 3개의 기문, 즉 “간성 향교 외삼문 창건기(杆城鄕校外三門創建記)”, “중수기”, “전무 중창기”가 계판되어 있다.

【참고문헌】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신증동국여지승람> : <판동읍지> : 문화재연구소, 1998, 문화유적총람

• 전봉상(全鳳祥)효자각 : 조선 선조때 사람인 전봉상(全鳳祥)은 부모가 일평생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을 무엇이고 백방으로 구입 대접한 효행으로 1610년에 비를 세웠다고 한다. 정·측 1칸에 팔작지붕이다. 1997년에 퇴락한 비각을 현위치로 이전 보수했다.

◎ 해상리(海上里)

△ 위치 : 동쪽으로는 거진읍 대대리, 서쪽으로 담현리, 북쪽으로 거진읍 초계리, 남쪽으로 교동리와 각각 접하고 있다.

△ 마을유래 : 간성읍 마을 각리 끝에 위치하여 있었기 때문에 속칭 위촌마을이라 불렀다. 해상1리 서쪽으로 8km지점에 구절록포가 있어서 이 폭포에서 흐르는 물을 우수라 하였으며 그 상류지역을 우천이라 했는데 우천의 우향으로 샘이 솟아 임천리(林泉里)라 불리워진 것이 지금의 해상1리가 됐다. 또 그 우수의 하류에 있는 마을을 변개(漣溪)라 부르는데 그것이 지금의 해상2리가 되었다.

구절록포 밑에는 육송정(六松亭)이라는 소나무가 있었는데 한 뿌리에서 6개의 나무가 떨어 나와 그렇게 불렀다고 하나 지금은 2개의 나무만이 현존하고 있다.

○ 해상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40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70명, 여자 66명으로 모두 136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36가구, 경상도가 3가구, 서울이 1가구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손씨가 17가구, 김씨가 9가구,朴씨가 4가구,李씨가 3가구,尹씨 2가구,崔씨와嚴씨,張씨,韓씨,趙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해상1리 마을전경

직업별 가구현황은 40가구 모두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50ha, 밭이 10ha, 임야가 120ha이다. 농기계로는 경운기 29대, 트랙터 7대, 콤바인 6대, 이앙기 11대, 양수기 14대, 전조기 1대, 분무기 16대, 기타 1대 등이다.

가축은 한우가 154두, 닭이 30수, 개 57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2년 8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9년 8월에 개통되어 현재 40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1983년 4월부터 시내버스가 개통되어 현재는 하루 여덟번씩 왕복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가 40대, 냉장고 40대, 자가용 10대, 오토바이 21대가 있고, 오디오, 비디오, 세탁기 등 각종 가전제품 보급이 급격히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 목재와 연탄에서 찰과래 유류보일러와 가스렌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내에는 가로·보안등이 모두 4개소가 있다.

마을회관은 1994년 4월 전평 18평의 이단한 세면버들스라브 2층 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는 불교가 10가구, 기독교가 5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 1972년 9월에 마을 앞 하천에 길이 50m의 교량을 가설했다. 또 1975년 4월에는 마을 앞에 있는 길이 580m 되는 소하천을 정비하고 농로를 개설했다.

1992년 3월에 1천2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420m를 포장했고, 동년 5월에 2천3만원을 들여 암거 교량 14m, 콘크리트포장 47m, 옹벽 19m 등의 공사를 마쳤다.

1993년 4월에 군부대주변마을 환경정비를 위해 1억원을 들여 용수로 424m, 하수도 326m, 소하천 540m, 교량 11m를 각각 설치했다.

1994년 4월에는 1억1천8백45만원을 들여 해상-송강간의 도로 780m를 아스콘을 포장하는 한편 1996년 4월에는 2천3백38만원을 들여 취입보 25m를 설치와 동년 4월에는 4천7백18만원을 들여 교량 12m 가설과 4.7m의 옹벽을 설치했다.

△ **마을신앙** : 음력 1월 7일날 마을 뒷산 성황당에서 지내는 성황제가 있는데, 이때는 마을 웃어른 및 대표들이 모여서 1년 내내 마을에 아무 사고도 없이 마을사람들이 평안히 지낼 수 있기를 빈다.

• **의식절차** : 생기 맞는 사람을 선정하여 제주로 하고 먼저 제관이 잔을 드리고, 축을 고

한뒤 온 마을사람이 다같이 음식을 재를 올렸다.

또한 작자가 소지를 올렸으며 소지가 잘 안오르는 사람은 용한 징조라 하여 다시 소원을 빌며 소지가 올라가도록 했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 보름에 췌불놀이를 즐겼는데, 야땃 마을인 팔음마을(해상 2리)과 마을 뒷산에 올라 달맞이를 한 후 췌불을 던져 싸움을 하며 승자 마을은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고 한다.

△ **회다지 노래** : 귀절 끝후렴이 어흥산 달구야로 끝나는 마을의 회다지 노랫말

〈가사내용〉 산지조정은 골물산이요, 수지조정은 황해수라.

산백이 흘러 대한으로 흘렀으니 백두산성을 기봉하고 백두산이 흘러서 금강산을 기봉하고

금강산이 흘러서 함로봉을 기봉하고 함로봉이 흘러서(산자리, 산이름)을 기봉하였으니

이 산 좌향은 ~ ~ 요 이 산 우향은 ~ ~ 요

이산산지 3년 안에 아들을 낳으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를 낳는다.

△ **산, 나무 등의 전설**

• 호래비 굴짜기 : 마을 앞 굴짜기로서 옛날 이곳에서 흙아미가 혼자서 살았다고 하여 그렇게 칭하여 현재까지 전해 내려 오고 있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미나리** : 6월에서 7월경 김매기를 할때 일꾼들이 즐겨부르던 민요로 '오돌독'의 노래에 가사만을 바꾸어 불렀다.

〈가사내용〉 때어주게 때어주게 이논배미 때어주게

이논배미 때어주면 중치생선 해다듬세

중치생선 아니먹는 심재꼭선 중야살까

○ 해상2리

△ **마을유래** : 법정리명은 해상리이고, 행정리상 명칭은 해상2리 라고 하며, 속칭 팔음리(八音里)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선조때에는 팔음이라 불리워졌는데 팔음이란 금, 석, 흙, 죽, 목, 토, 초, 포의 8가지 소리를 말하며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팔음(八音)이 극해(克諧)하여 무상탈운(無相奪倫)이면 신인이화(神人以和)' 하였는데 이는 여덟가지 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 귀신도 사람과 화합한다는 뜻으로 처음 마을의 준령 끝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여 팔음이라 칭한 것이 현재



해삼2리 마을전경

까지 전해오고 있다.

△ **가구 및 인구** : 가구는 총 62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06명, 여자 85명으로 모두 191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60가구, 서울이 2가구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한씨가 26가구, 김씨가 20가구, 남씨가 5가구, 황씨가 4가구,尹와 池씨가 각각 2가구씩,李씨와 金씨, 劉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47가구, 상업 1가구, 기타 14가구가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73.1ha, 밭이 16.5ha, 임야가 84ha이다. 농기계로는 경운기 42대, 트랙터 16대, 콤바인 11대, 이앙기 34대, 양수기 21대, 전조기 6대, 분무기 26대, 동력예취기 6대, 기타 4대 등이다.

가축은 한우가 179두, 닭이 30수, 개 34마리, 토끼 6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농·축산업을 주된 소득원으로 비교적 부유한 농촌마을이다.

전기는 1972년 8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4년 8월에 개통되어 현재 58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1983년 4월부터 시내버스가 개통되어 현재는 하루 다섯번씩 왕복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가 65대, 냉장고 63대, 자가용 12대, 오토바이 33대가 있고, 오디오, 비디오, 세탁기 등 각종 가전제품 보급이 급격히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중전 목재와 연탄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가스렌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내에는 가로·보안등이 모두 11개소가 있다.

마을회관은 1974년 4월 건평 20평의 아담한 세면벽돌스레이트 건물로 신축했으나 지금은 건물이 낡아 사용을 못하고 있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9가구, 불교 8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세마을사업으로 1974년 2월에 63m의 마을안 하천을 총사업비 5백10만원을 들여 정비했고, 1979년 3월에는 마을 앞길에 총사업비 1백85만원을 들여 38m의 교량을 가설했다.

1984년 3월에는 530m의 마을 안길을 사업비 2천6백만원으로 포장했다.

△ **마을신앙** : 구전에 의하면 옛날 선조들이 음력 3월 3일이 되면 마을의 평안을 비는 치성재를 산정터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조선 말엽 때 호랑이가 치성 도가집을 들어간후 부터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

△ **마을 세시풍속**

• 영동 : 음력 2월 초하루 영동이라는 의식행사를 갖는데, 이것은 집집마다 영동이라는 신을 모셔 놓고 평안을 비는 행사이다.

• 쓰레 씻음 : 6월경 모내기가 끝나면 쓰레를 씻고 농주를 갖다 놓고 온마을 사람들이 모여 하루를 즐겼다.

• 햇불놀이 : 음력으로 정월 보름에 위천(해상1리)마을과 괏음마을(해상2리) 주민들이 모두 뒷산에 모여 햇불을 들고 달맞이를 한후, 햇불싸움을 하여 이기는 마을에 풍년이 든다고 하여 즐겨온 행사이다.

△ 산, 바위, 나무 등의 전설

• 선바위 : 해상리에서 서쪽으로 약 3km되는 지점에 바위가 우뚝 솟아 있는데 그 모양이 꼭 배(선박)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배 "선(船)"자를 따서 선바위라 불렀다고 하는데 배머리 모양처럼 생긴 부분이 하늘로 치솟아 있다.

• 곰바위 :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4km되는 곳에 있는 바위로 그름에서 곰이 자주 발견되었다고 하여 곰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 마을 명승고적 현황

• 정석개(鄭石介)열녀각 : 해상2리 곰골에 있으며 1592년부터 1593년 사이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정석개란 여인이 부락사당과 을계와 함께 산으로 피신하였는데, 석개는 분장했기에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저항한바 두 유방(乳房)을 칼로 도려낸 다음 칼로 찢어 죽이니 열녀도 칭하고 나라에서 정문을 세웠다.

• 온정굴 : 옛날부터 전해 오는 전설에 의하면 해상2리 마을 앞 산골짜기에 온천이 있어서 온정굴로 칭하여 오다가 언제부터인가 거지가 온천에 많이 찾아 들어 온천이 없어져 버렸고 그후엔 온정굴로 불렀다고 한다.

• 간성향고기적비(杆城鄕校紀蹟碑) : 해상 2리 마을 앞을 흐르는 개천 건너편에 서 있는 세그루의 소나무 고목 사이 비각 내에 위치한다. 비각은 정면, 측면 각 1칸(305cm×276cm)이며, 맞배지붕이고 약 70cm 높이의 초석위에 기둥을 세웠다. 내부에 기적비를 두고 홍살을 둘렀다. 비대좌와 개석은 화강암 재질로, 개석의 앞뒤로는 당초문과 꽃봉우리가 조식되어 있다. 십목 화강암 재질의 비신은 142cm×60cm×22cm 크기이며, 주철이 되어 있는 비문은 여의경이병도(李秉模)가 찬(撰)하고, 형조판서 서영보(徐榮輔)의 서(書)와 유한지(俞漢芝)의 전(篆)으로 되어 있다.

건립 연대는 순조 5년(1805)이다. 기적비의 비문 내용에 의하면 임진왜란 당시 간성 향교를 점거한 왜군에 맞서 향교의 재임(齋任)이었던 김자발(金自發)과 박응열(朴應烈) 등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성인의 위패를 거두어 정결한 곳에 봉안하였고, 이어 왜군에 의해 전소된 향교를 두 공의 발의로 1592년 10월에 중건을 시작하여 다음해 2월 초에 낙성을 하여 제례를

풍행할 수 있었다.

이후 관찰사 정술(鄭述)의 상주로 공이 많은 두 사람에게 포상이 내려지게 되었으며, 1592년 10월에 증건을 시작하여 다음 해 2월초에 낙성하여 제례를 종행할 수 있었다. 순조 5년에 간성 향교 유림의 공의로 김, 박(金,朴) 등 재공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이 가적비가 건립되게 되었다고한다. 1997년 12월 15일 퇴락한 비각을 3천만원의 군비를 들여 기와고르기와 부식목재 교체, 단청등으로 새롭게 정비했다.

【참고문헌】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간성향교지》 : 문화재연구소, 1998, 문화유적총람

◎ 광산리(廣山里)

△ 위치 : 동쪽으로는 교동리, 서쪽으로 향로봉산맥, 남쪽으로 여천리와 장신리, 북쪽으로 해상리와 각각 접하고 있다.

△ 마을유래 : 구전에 의하면 원래 간성 부천강 상류에 있는 부락으로 강의 북쪽마을을 만산(晩山)이라 하였고 강의 남쪽을 광평(廣坪)이라 하였는데 일제때인 1915년 행정구역 개편시 “광평”에서 “광(廣)”자와 “만산”에서 “산(山)”자를 따서 광산리(廣山里)라 칭하고 1, 2, 3, 4리로 분할, 명명하게 됐다.

광산1리는 행정상 3반으로 나뉘어졌는데 1반을 안말, 2반을 앞말, 3반을 새마을이라 칭하고 마을 앞들을 정자평이라고 부른다.

○ 광산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88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21명, 여자 112명으로 모두 233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67가구, 경상도와 전라도가 3가구씩, 서울이 5가구, 경기도가 2가구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윤씨가 30가구,李씨가 11가구,朴씨가 8가구,崔씨와尹씨가 5가구씩,洪씨가 3가구,鄭씨와張씨,黃씨,史씨,申씨,宋씨가 각각 2가구씩,林씨와南씨,呂씨,薛씨,沈씨,姜씨,河씨,孟씨,廉씨가 1가구씩, 기타가 5가구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44가구, 상업이 5가구, 기타 39가구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46ha, 밭이 5ha, 임야가 38ha이다. 농기계로는 정운기 25대, 트랙터 8대, 봄바인 3대, 이앙기 11대, 알수기 13대, 전조기 3대, 분무기 20대, 동력예취



광산리 마을전경

기 4대, 기다 6대 등이다.

가축은 한우가 233두, 유우 50두, 닭이 31수, 개 72마리, 오리 17수를 사육하고 있어 비교적 많은 농·축산업을 경영하고 있다.

전기는 1972년 8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4년 8월에 개통되어 현재 88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1979년 3월부터 시내버스가 개통되어 현재는 하루 여덟번씩 왕복 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가 88대, 냉장고 88대, 자가용 24대, 오토바이 14대가 있고, 오디오, 비디오, 세탁기 등 각종 가전제품 보급이 급격히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 목재와 연탄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가스렌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내에는 가로·보안등이 모두 10개소가 있고, 광산초등학교가 있다.

마을회관은 1972년 4월 전평 18평의 아담한 새멘백돌스레이트 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는 기독교 12가구, 유교 6가구, 불교 5가구, 천주교 2가구가 신앙을 갖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 1972년 5월에 마을안에 총사업비 40만원을 들여 15m의 교량을 가설했고, 1980년 4월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마을안의 500m의 소하천을 정비했다. 그리고 1백 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50m의 마을 중앙 진입로를 시멘트로 포장했다.

1992년 3월에 1천4백2십9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포장 128m(폭 4m), 보차도블럭 454m(폭 4m)를 정비했다.

1993년 5월에 1천2백74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332m(폭 3m)를 포장했다.

1994년 6월 19일 착공하여 1995년 8월 25일 완공된 교동-광산간 도로는 8억5백8십만원을 들여 1.56km(폭 6m)를 포장했다. 또 동년 11월 10억3천9백만원을 들여 62.8ha의 면적에 대한 경지정리를 1996년 5월에 마쳤다.

△ 마을신앙 : 음력 3월 3일 오후3시에 산맥이 끊어지는 부분에 모서 놓은 성황당에서 성황제를 지내는데 산신제라고도 부른다. 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마을에 재앙이 온다고하여 대대로 계속해서 지내고 있다.

구한말 때에는 향로봉에서 천신제를 지냈으나 수복이후 향로봉이 군작전지역으로 되면서 마을위 청룡봉에서 성황제를 지내다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게 됐다.

의식절차는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와 동일하며 마을 고령자 중에서 생기맞은 사람을 선질하고 제사일까지는 살생금지, 마을 소란금지 등을 철저히 지킨다.

△ **마을 새시풍속** : 정월에는 민속의 날과 대보름에 농악놀이를 즐겼으며, 6월에는 모내기
를 끝내고 풍년을 기약하는 뜻으로 전마을 사람이 모여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기는데 이를
화전놀이라 한다.

△ **회다지 노래** : 전문은 아니지만 마을에 전해지는 회다지 노래의 일부

(가사내용) 이산은지 3년만에 에헤루 달구야

아들을 낳으려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낳으려면 열녀를 낳고

△ **속칭이름**

• 대동(大洞) : 광산초등학교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골짜기로 그 규모가 크다 하여 대동
(大洞)이라 칭하여 전해오고 있다.

• 산제동 : 1740년대부터 산신제를 지내던 곳이라 하여 산제동이라 불렸으며 그위의 골짜
기를 효지논골이라 한다.

• 천제(天祭)골 : 광산초등학교 서편의 골짜기를 말하며 옛날에는 이곳에서 천제(天祭)를
지냈다고 한다.

• 하곡(下谷 아랫골) : 광산1리 광산초등학교의 동편에 있는 해상1리로 넘어가는 골짜기.

• 대곡(大谷 큰골) : 광산초등학교의 뒷골로 현재 향로봉 치성당이 있다.

• 배루소 : 광산1리에서 2리로 가는 고갯길에 있는 소를 이르는데 옛날엔 매우 깊었으나
지금은 개간으로 규모가 적어졌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어랑타령**

아라리요,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북대기단이 두들석 새앙귀 한쌍이 놀고요.

향단이불이 두들석 처녀 총각이 노누나.

어랑 어랑 어랑 어허야 데야.

○ **광산2리**

△ **마을유래** :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큰 돌이 자연적으로 파여 모양이 가마솥
처럼 되었는데 부락의 생긴 모양도 원형으로 되었다 하여 속칭 부동(釜洞 가마골)이라고도 부
른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61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98명, 여자 84명으로 모두
182명이다.



광산2리 마을전경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41가구, 경상도가 8가구, 서울 6가구, 충청도 3가구, 전라도 2가구, 경기도 1가구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11가구씩, 박씨가 10가구, 남씨가 6가구, 손씨가 4가구, 최씨와 정씨가 각각 3가구씩, 홍씨와尹씨, 홍씨가 각각 2가구씩, 백씨, 장씨, 정씨, 최씨,申씨, 안씨, 최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29가구, 상업이 3가구, 기타 29가구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40.5ha, 밭이 6.8ha, 임야가 76ha이다. 농기계로는 경운기 28대, 트랙터 3대, 콤팩트 4대, 이앙기 12대, 양수기 2대, 전조기 3대, 분무기 6대, 동력예취기 5대, 기타 4대 등이다.

가축은 한우가 79두, 돼지 700두, 닭이 113수, 사슴 36두, 개 111마리, 오리 20수를 사육하고 있어 비교적 다양한 농·축산업을 경영하고 있다.

전기는 1976년 5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9년 6월에 개통되어 현재 58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1979년 3월부터 시내버스가 개통되어 현재는 하루 여덟번씩 왕복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가 65대, 냉장고 63대, 자가용 13대, 오토바이 4대가 있고, 오디오, 비디오, 세탁기 등 각종 가전제품 보급이 급격히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 목재와 연탄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가스렌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내에는 가로·보안등이 모두 7개소가 있다.

마을회관은 1972년 4월 전평 12평의 아담한 세멘트돌스퀘이트 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는 불교가 4가구, 기독교 3가구, 천주교 1가구가 신앙을 갖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 1974년 3월에 마을안에 총사업비 3백25만원을 들여 5m의 교량을 가설했고, 1980년 4월에는 1백24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마을안길 100m를 시멘트로 포장했다.

1995년 5월에 1천1백5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내 석축 144m와 흙관300mm를 설치했다.

△ 마을 특산물 : 굴바위, 송도굴, 가래재 등의 산에서 송이버섯을 야생 채취하는데 현재 10가구가 참여해 연간 8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 마을신앙 : 매년 마을의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의미로 정월 초하루에 마을 성황당에서 성황제를 지낸다.

이것은 옛날부터 성황당에 선을 모셔 놓고 마을일이 순조롭게 행해지지 않으면 성황당에서 가서 빌었던 것이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 의식절차 : 재물로는 돼지머리를 필수적으로 준비하고 마을 어른 중에서 생기맞는 사람을 제주로 선정하여 그중 최고령자가 초혼을 올리는데 제사1주일 전에는 상가집을 급하며 상을 입은 자는 참석치 못한다.

△ 마을 세시풍속 : 매년 모내기가 끝나는 6월이면 전마을 주민이 참여 노래와 춤을 즐기는 화전놀이판을 하고 있다.

△ 회다지 노래

〈가사내용〉 태백산맥이 흘러 황로봉을 기봉하고

황로봉 산맥이 흘러 뚝 떨어졌으니 ~산이 로되.

이산쓰고 3년만에 아들을 낳으려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낳으려면 열녀를 낳아

(후렴) 예예루 달구아.

△ 산, 바위, 나무 등의 전설

• 굴바위 : 마을 북서쪽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바위 밑에 넓이 15m 정도로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다하여 굴바위라 칭하고 있다.

△ 속칭이름

• 승도골 : 마을 북쪽 6km 떨어진 곳에 옛날 고려시대에 몽고족이 침입하였을때 승려들이 피난하였던 굴짜기가 있다하여 승도골이라 칭하여 전해오고 있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미나리 : 길게가 할때 부르던 노래

〈가사내용〉 매어주게 매어주게 이논배미 매어주게

지어가네 지어가네 증슴참이 지어가네

② 모내기지 노래 : 모낼때 허리 아픔을 달래가며 빨리 끝내기 위한 노래

〈가사내용〉 한층하더니 또 한층, 한층하더니 또 한층.

○ 광산3리

△ 마을유래 : 마을 앞에 있는 들이 상당히 넓어 넓은 광(廣), 들 평(坪)자를 따서 속칭 광평리(廣坪里)라 칭하였는데 일제시대 초기에 광산3리라고 개칭하여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24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42명, 여자 35명으로 모두 77명이다.



광산3리 마을전경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24가구 모두가 강원도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손씨가 7가구, 김씨가 6가구, 박씨가 3가구, 최씨가 2가구, 이씨와 남씨,鄭씨,張씨,韓씨, 魚씨, 高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19가구, 기타 5가구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35ha, 밭이 4ha, 임야가 90ha이다. 농기

재로는 경운기 13대, 트랙터 3대, 콤팩트 4대, 이앙기 12대, 양수기 2대, 전조기 3대, 분무기 13대, 동력예취기 5대, 기타 5대 등이다.

가축은 한우가 72두, 개 58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2년 10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8년 7월에 개통되어 현재 24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1979년 3월부터 시내버스가 개통되어 현재는 하루 여덟번씩 왕복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가 24대, 냉장고 24대, 자가용 9대, 오토바이 9대가 있고, 오디오, 비디오, 세탁기 등 각종 가전제품 보급이 급격히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 목재와 연탄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가스렌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내에는 가로·보안등이 모두 5개소가 있다.

마을회관은 1978년 4월 전평 20평의 아담한 세면벽돌스라브 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는 불교가 7가구, 기독교 3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 1977년 9월에 총사업비 1천53만원을 들여 96m의 교량을 가설했고, 1983년 3월에는 지원금 1백89만원, 주민부담 3백19만원 등 총 5백8만원을 들여 마을안길을 포장했다. 1984년 3월에도 총사업비 238만원으로 길이 100m의 마을안길을 포장했고, 1992년 11월에 7백76만원을 들여 용벽 108m(높이 2m)를 설치했다.

△ 마을신앙 : 마을에서는 옛날부터 산신제라고 부르는 서낭제를 지내는데, 이는 음력 정월 달에 마을사람 각자가 생기맞는 날을 택하여 날마를 정한뒤, 마을 앞 서북쪽 50m 정도에 위치한 석황당에서 지낸다. 주, 과, 포를 췌상에 놓고 각 호별로 소지를 올림을 시작으로 의식을 거행한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6월15일에는 일꾼의 날이라 하여 음식을 장만하여 일꾼에게 대접하였던 행사인데 일제말기부터 서서히 없어졌다고 한다. 이 행사를 유두놀이라 불렀으며 이때

에는 온마을 주민이 모여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겼는데 특히 머슴을위하는 날이었다.

△ 회다지 노래

〈가사내용〉 어얼싸 달구야 이산 좌향은 - 요

북쪽은 짙어지고 남쪽을 향하고

이산쓴지 3년만에 아들을 낳으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를 낳고

나랏님 전에 충신이요 이웃에 화목동이라.

소를 낳으면 적박굴이라 개를 낳으면 참살개라 닭을 낳으면 봉황이 되고

(후렴) 어얼싸 달구야.

△ 속칭이름

- 오리평 : 들길이가 족히 5리는 된다하여 오리평이라 부른다.
- 소쟁이 : 소쟁이 골에는 까마귀 머리가 있어 이동네 시집오면 까마귀머리라 했다.
- 그외에 고치골, 뒷방축골, 감들이 등의 속칭이름이 전해오고 있다.

○ 광산4리

△ 마을유래 : 옛날에는 위계촌이라고도 했다. 1961년 33세대가 서울에서 이주하여 정착한 마을이라 하여 속칭 정착마을이라 했는데 1976년에는 행정개편으로 인하여 광산 1리에서 7가구가 편입되기도 했다. 1961년 이전에는 광산1리에서 편입되었다고 해 탄산이라 불렀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39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64명, 여자 64명으로 모두 128명이다.



광산4리 마을전경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33가구, 경기도와 서울이 2가구씩, 전라도와 충청도가 각각 1가구씩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손씨가 12가구,朴씨가 6가구, 閔씨가 4가구,李씨가 3가구, 崔와 金씨, 鄭씨, 姜씨가 각각 2가구씩, 林씨와 尹씨, 吳씨, 趙씨, 池씨, 嚴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23가구,

운수업 등 기타업종이 16가구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20ha, 밭이 3ha, 임야가 8ha이다. 농기계로는 경운기 15대, 트랙터 1대, 이앙기 8대, 양수기 2대, 전조기 1대, 분무기 63대, 기타 8대 등이 있다.

가축은 한우가 61두, 개 84마리, 닭이 14수, 산양 14두, 오리 7수를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2년 10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8년 7월에 개통되어 현재 36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1979년 3월부터 시내버스가 개통되어 현재는 하루 여덟번씩 왕복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가 49대, 냉장고 43대, 자가용 18대, 오토바이 12대가 있고 오디오, 비디오, 세탁기 등 각종 가전제품 보급이 급격히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 목재와 연탄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가스렌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내에는 가로·보안등이 모두 6개소가 있다.

마을회관은 1972년 4월 전평 12평의 아담한 세멘트돌아연 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는 기독교 8가구, 불교 5가구, 천주교 4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 1972년부터 1978년에 걸쳐 2개의 교량을 가설했고, 또 2개의 소하천을 정비했다. 교량은 1972년 2월에 총사업비 23만원을 들여 6m로 마을입구에, 1975년 3월에는 지원액 16만원, 자부담 22만원 등 총사업비 38만원을 들여 5m의 교량을 마을안에 각각 설치했다.

1975년 3월에는 지원금 29만원, 주민부담 90만원 등 총 1백19만원을 들여 300m의 마을 앞 소하천을, 1978년 3월에는 총사업비 2백25만원으로 550m의 마을앞 하천을 각각 정비했다. 1992년 3월에 2천2백70만원을 들여 보차도블럭 367m, 하수도 290m, 폭관 55m를 설치했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 대보름에는 전마을 주민이 참가하여 상풍 및 갖가지 술과 음식을 장만해 놓고 2괴로 나누어 율놀이를 즐긴다.

△ 산, 바위, 등의 전설

• 탄 봉 : 마을입구 중앙에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데, 다른 산과 떨어져 있다하여 외딴봉이라 부르다가 탄봉으로 전해오고 있다.

㉔ 어천리(魚川里)

△ **위치** : 동쪽에 간촌리와 금수리, 서쪽으로 장산리, 남쪽으로는 탑동리와 선유실, 북쪽에는 장산리와 교동리가 각각 이웃하고 있다.

△ **마을유래** : 고기에 의하면 당초에는 내어탄리(內於吞里)라고 하였다가 마을의 남쪽으로 200m 지점에 막혀 소유의 산이 있었는데 그 생긴 모양이 어두(魚頭)처럼 생겼다하여 그 뜻을 따서 어룡리(魚龍里)라 칭하였다고 한다. 그후 언제부터 인지 어천리(魚川里)로 불리워지다가 행정구역 개편시 1.2리로 나누어졌다. 일설에 의하면 어변형룡(魚邊形龍), 즉 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었다' 등에서 본파 어룡리(魚龍里)라 불렀다고도 한다.

○ 어천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60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93명, 여자 109명으로 모두 202명이다.



어천리 마을전경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53가구, 경기도와 경상도, 전라도가 각각 2가구씩, 서울 1가구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林씨가 16가구, 손씨가 7가구,李씨가 5가구, 孫씨가 4가구, 崔씨와 金씨, 安씨가 각각 3가구씩, 南씨와 權씨, 趙씨, 申씨, 高씨가 각각 2가구씩, 嚴씨와 朴씨, 韓씨, 洪씨, 尹씨, 劉씨, 池씨, 白씨, 재갈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48가구, 상업이 1가구, 기타 11가구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78.8ha, 밭이 16.3ha, 임야가 78.5ha이다. 농기계로는 경운기 2대, 트랙터 11대, 양수기 16대, 이앙기 22대, 콤바인 5대, 전조기 4대, 동력 예취기 22대, 분무기 36대, 기타 5대 등으로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편이다.

가축은 한우가 251두, 돼지가 350두, 닭 30수, 개가 4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다른 마을에 비해 한우와 돼지를 많이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비교적 빠른 1972년 8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4년 8월에 개통돼 최근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58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64대, 냉장고 61대, 자가용 10대, 오토바이 29대 외에도 비디오와 오디오, 세탁기 등이 많이 보급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난방과 취사는 종전 입산연료와 연탄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79년 2월에 개통되어 하루 여덟번 왕복운행해 마을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해 주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6년 5월 지원금 45만원 등 총사업비 114만원을 들여 전정 20평의 세면벽돌 스타브 건물로 신축했다.

마을공동구관장은 1979년 1월에 처음 자본금 10만원으로 시작해 1985년 자산액이 2백30

만원으로 활발히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종교는 불교가 8가구, 기독교가 8가구, 천주교가 1가구 등이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2년 4월에 마을에서 어천1리 사이의 하천에 지원액 136만원, 자부담 179만원 등 총사업비 3백6만원을 들여 16m의 교량을 가설했다.

소하천은 1978년 3월에 지원액 9백70만원과 자부담 2백50만원 등 총사업비 1천2백20만원을 들여 1,200m의 공사구간을 정비했다. 1984년에는 마을앞 하천부근의 도로 100m를 지원금 1백8만원과 주민부담 1백49만원 등 총사업비 2백57만원으로 포장, 완공했다.

이어 1985년에 양회 500대, 철망 60개를 지원 받아 길이 110m, 폭 4m의 도로포장 공사를 완공했다. 1991년 3월에 1천2백30만원을 들여 진입로 534m를 포장했다.

1993년 10월 2천2백30만원을 들여 수해로 유실된 제방 축제공 250m, 호안공 200m를 복구했다.

1996년 4월에 2천45만원을 들여 취입보 23m를 설치했고, 동년 5월 2천7십5만원을 들여 마을안길포장 160m와 하수관로 170m를 설치했다.

△ **마을 특산물** : 마을의 12가구가 송이버섯을 채취, 연간 8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 **마을신앙** : 음력 정월 초하루 아침 7시에 마을뒷산의 성황당돌에서 한해동안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비는 뜻으로 성황제를 지낸다.

• **의식절차** : 햇상에 주, 과, 포를 차려 놓고 리장이 초헌을 한뒤, 평온과 풍년을 비는 내용의 축문을 고한 다음 마을전체의 길흉을 가리는 소리를 울리며, 이어서 각 호당 소지를 올린다.

△ **마을 세시풍속** : 매년 정월 보름에는 윷놀이와 널뛰기를 즐기고 단오날에는 그네뛰기를 한다. 6월에는 15일날 유두놀이를 하였으며 한가위에는 성묘를 하고 조상께 제사를 지낸다.

△ **화다지 노래** : 화를 다물때 다지며 하는 노래

〈가사내용〉 어얼싸 달구야, 이산뿐지 3년만에 아들을 낳으면 호자를 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를 낳는다.

나랏님 전에 충신이요, 이웃에 화목동이라.

이산 좌향은 ~여, 북을 걸어주고 남으로 향하고.

이산 우향은 좌라행이요

소를 때면 짝박굴이 낳고, 닭을 낳으면 봉황을 낳고.

△ **산, 바위, 나무 등의 전설**

• **관대바위(갯관)** : 마을의 남쪽에서 8km 떨어진 곳에 바위가 있는데, 생긴 모양이 머리에 쓰는 관처럼 생겼다 하여 관대바위라 불렀는데, 구전에 의하면 관대바위와 고성산 사이를 줄로 이어놓고 그 줄 위로 다녔다고 한다.

△ 속칭이름

- 잣골 : 마을 서쪽 4km지점에 위치한 골짜기로 나뭇잎 피리처럼 생겼다고 한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 ① 미나리 : 옛날부터 김대기 할매 부르던 노래

〈가사대응〉 배어주게 배어주게 빨리 배어주게

이논배미 얼전매고 저논배미 넘어가세.

오늘해도 겨반 갔는지 골짜 골짜 그늘이 지네.

빨리배세 빨리배세 해가 겨반 넘어가네.

○ 어천2리

△ **마을유래** : 마을입구에 섬처럼 뚝 떨어진 산이 있는데 그 모양이 사람의 시체처럼 생겼다고 하여 송장산이라 불렀다. 그 뒷산의 모양은 '금오가 탁자형'이라, 즉 까마귀가 뒤쫓는 모양이



어천2리 마을전경

라 하여 마을앞 하천의 천(川)자를 합하여 속칭 오금천(烏金川)이라 하였는데 중간의 '금(金)' 자는 옛날 뒷산에 사금이 나는 금광이 있었다 하여 '금(金)'자를 쓴다는 설도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38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71명, 여자 66명으로 모두 137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36가구, 경상도와 전라도가 각각 1가구의

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손씨가 7가구, 이씨가 6가구, 손씨가 5가구, 최씨가 4가구,鄭씨와 류씨가 각각 3가구씩,姜씨가 2가구,咸씨와 林씨, 韓씨, 魚씨, 黃씨, 趙씨, 白씨, 安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29가구, 상업이 1가구, 기타 8가구로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52.1ha, 밭이 7.7ha, 양어가 41.5ha이다. 농기계로는 경운기 13대, 트랙터 7대, 이앙기 17대, 콤바인 6대, 분무기 17대, 양수가 5대, 전조기 2대, 동력예취기 8대, 기타 8대 등이다. 농촌의 인력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농가계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축은 한우가 81두, 사슴이 30두, 토끼 20마리, 개 73마리, 꿀벌 100군 등을 사육하고 있어 비교적 부유한 농촌이다.

전기는 비교적 빠른 1972년 8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9년 6월에 비교적 일찍 개통돼 최근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35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39대, 냉장고 37대, 자가용 8대, 오토바이 20대외에도 비디오와 오디오, 세탁기 등이 많이 보급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목재 또는 현탄에서 탈피해 가스와 유류보일러에 의존하고 있다. 마을내에는 가로·보안등이 모두 6개소가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 4가구, 기독교 1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1년 4월 지원금 25만원 등 총사업비 80만원을 들여 전평 20평 세멘트돌스라브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84년 4월에 교동리에서 어천3리까지 이어지는 130m의 교량을 건설 하였고, 이어서 1984년 12월에는 어천이라 불리는 마을의 소하천 76m를 지원금 1백90만원, 자부담 1백42만원을 들여 정비했다. 1996년 10월에 3천2백만원을 들여 배수지와 배수시설 등 생활용수 공급시설을 개수하고, 2천6백8십만원을 들여 전기시설 보강했다.

1985년 4월에는 연장 100m의 마을 앞길을 지원액 1백7만원 등 총사업비 2백70만원으로 확포장 했다.

△ **마을특산물** : 30호의 농가가 약 165ha의 대대골에서 송이버섯을 채취하여 연간 2천2백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1992년도 오금천 영농법인조합을 설립해 농업경영을 시작했다.

△ **마을신앙** : 옛부터 마을을 평안하게 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매년 3월3일 낮12시에 오금천 마을 앞산 계당에서 성황제를 지낸다.

• 의식절차 : 조상의 제사절차와 동일하며 이장을 비롯하여 마을을 대표하는 어른이 참석하는데 불결한 사람과 상가집은 참석을 금한다.

젓상에는 주, 과, 포를 놓으며, 이장이 초헌을 하고 가가호호 전체가 소지를 올린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6월 15일에는 유두놀이를 하였는데 특히 일꾼을 위하는 날로 음식을 훌륭히 차려 대접하였으며 전마을 주민이 모여 채를 치고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기던 행사이나, 임제탄기부터 점차 없어졌다.

△ 회다지 노래

〈가사내용〉 어얼파 달구야. 이산 곶향은 —요.

북쪽은 짙어지고 남쪽은 향하고

이산은지 3년만에 아들을 낳으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를 낳고

나랏님 전에 충신이요 이웃에 화목동이라.

소를 배면 짝발굴이라 개를 낚으면 참팔개라 닭을 낚으면 봉황이 되고

(후렴) 어얼까 닭구야.

△ 산, 바위, 나무 등의 전설

• 송장산 : 해질때 산 모양이 꼭 사람 시체와 같다 하여 송장산이라 칭하여 오다가 그후 봉황산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 속칭이름

- 대대굴 : 마을앞
- 온정굴
- 광대굴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미나리 : 김데기 할때 즐겨 부르던 노래

(가사내용) 매어주게 매어주게 이논배미 매어주게

이논배미 얼진배고 저논배미 넘어가세.

이논배미 매어주면 증치생선 해다증세

지는구나 지는구나 짐실참이 지는구나.

○ 어천3리

△ 마을유래 : 산세가 수려하고 꽃이 많아 놀이에 적당하다 하여 속칭 꽃댕리굴이라 불렀다. 1961년 5.16혁명당시 30세대가 입주하여 마을을 형성했으며 그후 1963년 행정구역 개편에



어천3리 마을전경

따라 어천1리에서 분리하여 어천3리로 되었다. 2개반으로 나누어져 1반은 꽃댕이 마을. 2반을 너래굴이라 부른다. 3반은 광대굴이라 불렀으나 1979년에 없어졌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30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42명, 여자 39명으로 모두 81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27가구, 서울 2가구, 경기도 1가구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10가구, 魚씨가 5가구, 趙씨와 宋씨가 각각 2가구씩, 韓씨와 崔

씨, 呂씨, 孫씨, 尹씨, 吳씨, 申씨, 史씨, 秋, 盧씨, 許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27가구, 기타 3가구로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30ha, 밭이 20ha, 임야가 200ha이다. 농기계로는 경운기 17대, 트랙터 2대, 이앙기 2대, 콤바인 2대, 분무기 15대, 양수기 5대, 전조기 1대, 동력예취기 9대 등이다. 농촌의 인력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농기계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축은 한우가 66두, 개가 38마리 등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비교적 빠른 1976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6년 8월에 비교적 일찍 개통돼 최근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28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33대, 냉장고 29대, 자가용 7대, 오토바이 14대의에도 비디오와 오디오, 세탁기 등이 많이 보급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목재 또는 연탄에서 탈피해 가스와 유류보일러에 의존하고 있다. 마을내에는 가로·보인들이 모두 3개소가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5가구, 천주교가 4가구, 기독교가 3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84년에 마을진입로 중간지점에 4m의 교량을 가설했고, 1985년 3월에는 65만원의 지원금으로 2만의 너래굴 진입로 15m를 포장했다.

1994년 4월에 2천3백6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58m를 포장했다. 1994년 4월 5천9백76만원을 들여 군부대주변마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로포장 520m(폭6m)와 휴관부설 32m, 댐을 1개소를 설치했다.

△ **마을 특산물** : 노루고진방이꿀, 인반대기꿀 등 3.3ha에서 10가구가 송이버섯을 채취하여 1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얻고 있다.

△ **마을신앙** :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아침 면동이 뜨는 시간을 대하여 꽃댕이꿀 서쪽의 서낭당에서 산신께 마을의 풍년과 한해의 무사고를 비는 산신제를 지낸다.

• **의식절차** : 주, 과, 포를 껍상에 놓는데 특히 꿀어를 필수적으로 준비한다. 제관은 리장이 초헌을 하고, 1명은 생기맞은 깨끗한 어른을 선정하여 같이 제사를 지낸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 대보름의 달맞이놀이, 음력 단오날의 그네뛰기, 그리고 농사일이 끝나는 6월에는 유두놀이를 각각 즐긴다.

△ **속칭이름**

△ **너래굴** : 마을 서쪽에 위치한 1만을 이르는 명칭이다.

◎ 장신리(長新里)

△ **위치** : 동쪽에 어천리, 서쪽에 수동면과 향로봉산맥, 남쪽에 진부리, 북쪽에 광산리와 각

각 이웃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장신1리는 속칭 장밭이(長田)라고도 부르는데 그 유래는 정확치 않으나 지금부터 약450년전(조선 중종에서 인종시대)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때는 마을앞이 모두 밭이었고 그 밭의 규모가 장신2리까지 길게 분포되어 장전(長田)이라 부르고 부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후 1919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장신리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행정구역상 1,2리만이 있으며 1,2반을 하렛밭, 3, 4반을 웃밭이라고도 부르며, 장신2리는 새마을이라 부른다.

○ 장신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58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82명, 여자 80명으로 모두 162명이다.



장신1리 마을전경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46가구, 서울과 전라도, 충청도가 각각 3가구씩, 경상도 1가구, 경기도 1가구씩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14가구,李씨가 11가구,朴씨가 6가구,崔씨와 손씨가 각각 4가구씩, 咸씨가 3가구, 鄭씨와申씨, 姜씨가 각각 2가구씩, 林씨와 權씨, 尹씨, 吳씨, 徐씨, 劉씨, 宋

씨, 朱씨, 白씨, 沈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37가구, 상업이 3가구, 기타 18가구등으로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41.5ha, 밭이 4.5ha, 임야가 24ha이다. 농기계로는 경운기 24대, 트랙터 9대, 양수기 7대, 이앙기 9대, 콤바인 5대, 전조기 4대, 동력 예취기 8대, 분무기 12대, 기타 8대 등으로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편이다.

가축은 한우가 152두, 닭 152수, 사슴 48마리, 토끼 4, 오리 29수, 개가 90마리, 꿀벌 13군으로 비교적 한우와 돼지를 많이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비교적 빠른 1976년 5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4년 8월에 개통돼 최근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52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62대, 냉장고 54대, 자가용 19대, 오토바이 13대의외에 비디오와 오디오,

서탁기 등이 많이 보급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목재 또는 연탄에서 탈피해 LPG가스와 유류 보일러에 의존하고 있다. 마을내에는 가로·보안등이 모두 9개소가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 4가구, 기독교 2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가옥의 형태는 단독주택이 55동이고 연립주택이 3동이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80년에 4월에 총사업비 5백40만원으로 600m의 소하천을 정비했고, 1983년 10월에 고래줄 입구에 총사업비 2천4백57만원을 들여 40m의 교량을 가설했다. 또 100m의 마을안길을 세멘트 250포를 지원 받아 포장했다.

△ 마을 특산물 : 토종쌀을 생산하여 9가구가 연간 9백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북천 상류인 냇가에는 뚝썰구, 기름종지, 벼들치, 곤들매기 등 여러종류의 민물어종이 서식했으나 꺾지, 팽가리 등이 서식하면서 고을 어종이 없어지고 있다.

△ 마을신앙 : 양력 3월3일과 9월 9일에 서낭공의 제당에서 지내는 산신제가 있다.

구전에 의하면 마을형성이 된 후부터 지내왔다고 하는데 이때에는 마을의 전가구가 제사에 참여하여 마을의 결단과 풍년돌기를 기원한다.

• 의식절차 : 100근 정도의 돼지를 잡은 후 낮 12시에 제사를 지내는데 리장과 생기맞는 지관을 선임하게 된다. 만약 리장이 없을 때에는 초헌을 최고령자가 행한다.

제사시에는 상제나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는데 제사일로부터 1주일내에는 전마을 주민이 숙연하고 깨끗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사가 끝난 후 돼지고기를 가구별로 고루 분배한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으로 정월 보름에는 갖가지 상품과 음식을 정만해 놓고 부녀자를 중심으로 대보름 율놀이를 즐겼다. 6월에는 쓰레씻음이라 하여 마을의 모내기가 모두 끝나면 이웃마을로 모내기 품팔이를 하여 그 자금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냇가에 모여 물고기를 잡아 탕을 끓여 함께 나누며 그간의 피로를 풀며 하루를 즐긴다.

△ 회다지 노래 : 전문은 아니나 즉석에서 가사를 꾸며 부르던 노래

〈가사내용〉 이산쓰고 3년만에 아들을 낳으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를 낳고

에헤루 달구야 에헤루 달구야

△ 산, 바위 등의 전설

• 터박골 바위의 외문포 : 터박골 바위에는 외문포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바위앞에 외줄기 폭포가 있기 때문에 약 100년전에 새겨져서 지금껏 전해오고 있다.

• 선녀탕 : 터박골 외문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전에 의하면 선녀가 달밤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하는 바위 웅덩이.

△ 속칭이름

- 낮은 터골 : 장신리 마을 2km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곳에 저수지가 있다.
- 터박골 : 장신리 동북쪽 1km지점에 있는 계곡으로 옛날 전통사 절터로 추천되기도 했
다하여 터박골이 전한다.
- 가재골 : 마을 중간을 지나는 소하천으로 가재가 많이 있다하여 가재골이라 불렀으며 장
마 때만 물이 흐르고 상류에는 마을 강이상수도가 있다.
- 문암골 : 마을의 서쪽 계곡으로 산나물 및 버섯류가 많이 자생하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나물캐던 할머니가 이상한 산나물이 있어 한보따리 뜯어와 마을사람에 보여 주었는데 이것이
산삼이라고 판명돼 심마니들이 모여 나물 뜯은 곳을 다시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지금도 문암
골 어딘가에 산삼이 있다고 믿고 있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미나리 : 논에 김매기를 할때 부르던 노래이나 현재는 논 김매기를 하지 않아 없어져가
고 있다.

(가사내용) 매어주게 매어주게 이논배미 매어주게.

이논배미 매어주면 중희생선 해다듬세.

② 이랑다령 : '미나리' 외에 마을에 전해오는 민요

(가사내용) 복대기단이 두들석 새앙귀 한쌍이 높고요.

양단이불이 두들석 신랄 신부가 노누나.

어랄 어랄 어아 애해야 두아

내가 내사랑이로구나.

△ 마을 명소현황

• 냉천 : 터박골 바위 틈에서 나오는 샘물로 가물 때나 우기 때에도 물의 양이 일정하고
여름에는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우며 겨울에는 얼지 않아 계절따라 마을 주민들의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다.

○ 장신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33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57명, 여자 62명으로 모두
119명이다.

출산도면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25가구,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가 각각 2가구씩, 경상도 1가
구와 전라도가 1가구씩 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와 홍씨가 7가구씩, 한씨가 4가구,趙씨가 3가구,尹씨가 2가구,崔

백과 張씨, 손씨, 洪씨, 權씨, 劉씨, 姜씨, 郭씨, 申씨, 羅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17가구, 기타 16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12ha, 밭 7.6ha, 임야 112ha이다. 농기계로는 경운기 9대, 트랙터 1대, 이앙기 5대, 콤바인 2대, 동력예취기 1대, 분무기 4대, 기타 3대등이다. 가축은 한우 23두, 닭 120수, 산양 195마리, 오리 30수, 개가 26마리, 꿀벌 2군 등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비교적 빠른 1976년 5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9년 8월에 개통돼 최근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30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30대, 냉장고 30대, 자가용 11대, 오토바이 8대의에도 비디오와 오디오, 세탁기 등이 많이 보급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목재 또는 연탄에서 탈피해 LPG가스와 유류 보일러에 의존하고 있다. 마을내에는 가로·보안등이 모두 7개소가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기독교 1가구, 천주교 1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83년에 9월에 총사업비 6백20만원으로 40m의 교량을 가설했다.

△ 마을 특산물 : 옛날부터 9월에서 10월경이면 약16ha의 임야에서 송이버섯을 채취하여 연간 1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 봄에는 금취, 참나물, 고사리, 사추박, 더덕, 산도라지 등을 채취하고, 가을에는 밤버섯, 능이버섯, 곰버섯, 싸리버섯, 피꼬리버섯, 노루궁둥이 등 풍부한 자연산 버섯을 채취하여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다.

△ 마을신앙 : 음력 8월14일 마을에서 3km 떨어진 모내골에 있는 산제당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구전에 의하면 사방에 산을 끼고 있는 마을이라서 산을 무시하면 큰벌을 받는다고하여 대대로 내려오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리장을 비롯하여 매년 돌아가면서 음식을 차리고 '도가집' 어른과 생기맞는 5일 이내의 마을 어른이 참석하여 제를 올리고 마을의 평온을 기원한다.

• 의식절차 : 메를 짓고 돼지머리를 쟁상에 올리며 리장, 도가집, 지관의 순으로 잔을 드린후, 평안을 비는 축을 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제사시에는 음식을 가리는데 특히 닭고기와 개고기를 삼가하고 상가집을 금하며, 무정이 있는 자는 참석치 못하게 한다.

△ 회다지 노래

(가사내용) 북망산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북망산일세.

하나님전 명을 받아 재성임전 복을 받아

부모 앞에 탄생하니 한두살은 철을 몰라

(후렴) 애해야 달구야 애해야 달구야.

△ 속칭이름

• 장자골 : 마을 서쪽 3km지점, 옛날에 부자였던 장씨 집안이 거주하였던 곳.



장신2리 마을전경

• 머네골 : 마을 북쪽 향로봉에서 삼봉을 지척 내려오는 골짜기로 골이 멀고 길다하여 머네골이며 60년대에는 굴피채취, 숯색조 장소로 유명하고 심마니가 산삼을 많이 캐던 곳이다.

• 다리골 : 마을 남쪽

• 함정막골 : 골이 함정처럼 움푹한 곳

• 큰자리골 : 1만 뒷산

• 선혜골 : 1만 밭골

• 작은 머네골 : 장신 2리 2반 다리 골짜기

• 척소 : 마을 서북쪽에 2개의 작은 폭포아래 소를 이루고 있는데 연어 등 회귀어종이 북천상류를 따라 이곳까지 온다고 하며 구전에 의하면 용(龍)이 승천하다 떨어져 이무기가 되어 폭포 밑의 굴 속에 살았다고 전한다.

• 용소 : 마을 서북쪽의 진부령 방향 하천을 따라 3km 거리에 있으며, 구전에 의하면 용이 놀던 곳이라 하여 '용소'라고 하며 그 깊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 장신리 유원지 : 피서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1990년 3월 22일 하천주변 11,819평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해 찾아오는 피서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청소 등 시설을 마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다.

◎ 탑동리(塔洞里)

△ 위치 : 동쪽에 죽왕면 공현진리와 오봉리, 서쪽으로 어천리와 연결되어 있고, 남쪽에 죽왕면 구성리, 북쪽에 어천리와 금수리가 각각 이웃하고 있다.

△ 마을유래 : 탑동리로 불리우기 전에는 마을앞 농경지에 수렁이 많다하여 속칭 고래술이라 불리우다가 마을에 문씨가 임주한 후, 서북쪽 50m 위치한 곳에서 이름을 알수 없는 탑을 발견하였다 하여 탑동이라 칭하여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 탑동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22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50명, 여자 41명으로 모두 91명이다.



탐동1리 마을전경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22가구 전체가 모두 강원도지역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朴씨가 7가구, 金씨와 禹씨가 각각 3가구씩, 張씨와 鄭씨가 각각 2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20가구, 상업이 1가구, 기타 1가구등으로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16.6ha, 밭이 3.5ha, 임야가 132ha이

다. 농기계로는 경운기 15대, 트랙터 1대, 양수기 14대, 이앙기 8대, 동력예취기 4대, 분무기 13대, 기타 11대 등으로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편이다.

가축은 한우가 77두, 닭이 40수, 개가 80마리, 꿀벌 8군 등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비교적 빠른 1976년 3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4년 8월에 개통돼 최근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18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어 편리한 지리적 여건을 해소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23대, 냉장고 21대, 자가용 10대, 오토바이 9대외에도 비디오, 오디오, 세탁기 등이 많이 보급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목재 또는 연탄에서 탈피해 LPG가스와 유류 보일러에 의존하고 있다. 마을내에는 가로·보안등이 모두 6개소가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4가구, 기독교 1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 1973년 11월에는 마을안에 있는 330m의 소하천을 총사업비 74만원을 들여 정비했고, 1975년 3월에 마을전너에 위치한 25m 교량을 지원금 32만원, 자부담 50만원 등 총사업비 82만원을 들여 가설했다.

그후 1984년에는 100m의 마을진입로를 시멘트 500포로 포장했고, 다음해에는 연장 150m의 마을진입로를 총사업비 2백54만원을 들여 깨끗히 포장했다.

1993년 4월에 2천2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491m(폭 4m)를 포장했으며, 1996년 7월에는 7천8백77만원을 들여 마을진입로 200m를 포장하고 120m의 U형측구와 옹벽 20m를 설치했다.

△ 마을신앙 : 음력 10월10일에 지내는 대치성제가 있는데 구전에 의하면 지금부터 120여 년전 문씨일가가 처음 마을에 들어와 살 때 탐동마을에 쥐동이라는 고질병이 돌았는데 산신께 제사를 올린 가정은 질병이 없었으나 이를 믿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사람은 병이 돌았다

고하여 그후부터 이를 대치성제라 부르며 열심히 지켜왔다고 한다.

• 의식절차 : 주, 과, 포를 준비하고 밭을 잡아서 출개비를 깔고 제상에 놓으며 쌀 3되 3홉으로 지루떡을 찌서 제상에 올린 뒤, 초혼은 리장이 하고 생기 맞는 부락의 최고령자가 제사를 지낸다. 또한 집집마다 소지를 올리는데 소지가 잘 오르면 좋은 징조라 하였고, 잘 오르지 않는 사람은 나쁜 징조라 하여 잘 오를 때까지 빌며 끝까지 소지를 올린다.

△ 마을 세시풍속 : 6월 보름에 행하는 유두놀이와 모내기와 김매기가 끝난 후 대개 6월에 행하는 '쓰레섯음'이라는 행사가 있었다.

△ 회다지 노래 : 전문은 아니고 생각나는 귀절의 가사 일부를 정리.

(가사내용) 금강산이 흘러 향로봉이 기뵈하고 에헤루 달구야.

향로봉 산맥이 흘러 마산봉이 기뵈하고.

이산 쓴지 삼년만에 아들을 낳으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를 낳고...

△ 산, 바위, 나무 등의 전설

• 마송(馬松)나무 : 탑동1리 마을에 들어서면 마을앞 냇가에 우뚝 솟은 큰 소나무가 보이는데 이 나무를 마송나무라 부른다.

나무의 수령은 약 250~300년으로 추정되며 그 둘레가 4m나 된다. 현재는 이 나무부근이 하천으로 되었으나 구전에 의하면 지금부터 약 150년전 이 마송나무 부근에 가옥이 몇채 있었는데 개사년 포락시 가옥이 물에 잠기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 소나무에 올라가 다리를 밟는 모양으로 걸치고 피신하여 목숨을 구했다 하여 말 바(馬)자를 따서 마송나무라 붙였다고 한다. 지금은 이 마송나무를 둘러싸고 양쪽으로 냇물이 흐르고 있으며 소나무 있는 곳은 섬 형태를 이루고 있어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 독바위 : 탑동1리 서쪽으로 2km지점에 있는 폭포수 위에 독처럼 생긴 독 모양의 경사가 비슷한 바위를 독바위라 했는데 옛날에 나무하러 갔다 오다가 그 바위 위에 돌을 던져 바위 위에 돌이 올라 앉으면 혼사가 이루어 진다는 전설이 있어 장가를 못 간 노총각들이 계속 돌을 던져 지금은 올라앉은 돌이 많이 쌓여 있다.

△ 속칭이름

• 동누굴 : 마을 서쪽의 폭포수 있는 곳

• 안고래술 : 마을 앞

• 새고개 : 마을 서쪽에 있는 탑동2리 넘어가는 고개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미나리 : 손으로 김매기를 할때 허리 아픔을 잊기 위해 부르던 노래

(가사내용) 매어주게 매어주게 이논매미 매어주게

일락서산에 해 떨어졌네 동녘에 걸출 오른다.

탈리게세 이논배미 탈리게고 저논배미 넘어가세.

△ 마을 명소현황

• 약수터 및 냉천 : 탑동1리에서 남천 하류쪽으로 2.5km정도에 절벽이 있는데 이 암석의 지상 2m되는 상단부에서 냉천이 흘러내리는데 여름철 땀띠 종류의 피부병 환자가 이 약수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면(냉잠이라 함) 동쾌하게 잘 나았다고 한다.

○ 탑동2리

△ 마을유래 : 1973년 행정구역 분도시 2만을 따로 떼어 마산봉의 신선 함을 본따 신선 '선(仙)'자와 옛날 선선이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에 따라 놀 '유(遊)'자를 써서 속칭 선유실리(仙遊室里)라고 불리우고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4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6명, 여자 8명 등 모두 14명으로 농촌인구의 도시 유출로 아주 작은 마을이 되었다.

경지보다는 산지가 대부분인 마을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산지에서 생산되는 솔이버섯, 약초 등 임산 부산물을 채취하여 생활하고 있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4가구 전세가 모두 강원도지역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2가구, 박씨와 홍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2.3ha, 밭이 0.3ha, 임야가 124ha이다. 농기계로는 경운기가 4대, 양수기 2대, 이앙기 1대, 분무기 3대, 기타 3대 등이다.

사육 가축현황은 한우 41두, 개 11마리, 꿀벌 1군 등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비교적 빠른 1980년 3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2년 6월에 개통돼 현재 4가구 모두가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4대, 냉장고 4대, 자가용 3대, 오토바이 2대외에도 비디오와 오디오등이 많이 보급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 1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 1974년 3월에는 마을 동남쪽에 위치한 17m의 교량을 가설했고, 1985년 4월에는 연장 110m되는 마을안길의 도로포장을 완공했다.

△ 마을신앙 : 음력 3월 3일 처종끝 서낭집에서 옛부터 전해 오는대로 성황제를 지낸다. 구전에 의하면 마을의 모든 일을 산신께 의지하고 입산하기 전에는 반드시 산신께 제사를 지낸 뒤 입산하여야 아무사고 없이 돌아 올 수 있다 하여 그후 부터 산신령을 위하는 풍습이 생겨나 현재까지 전해내려 오고 있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 보름에 망우리리라고 불리는 물쫓놀이를 하였고 6월에는 진놀이

(쓰레깃읍이)와 유두눌이를 즐겼다.

△ 산, 바위, 나무 등의 전설

• **쇠종골** : 지금부터 약100년전, 철이 들어 있는 암석을 장작불의 용광로에 녹여 흘러내리는 쇳물로 버섯(연장), 농기구 등을 만들던 곳이라 하여 쇠종골이라고 했다.

△ 속칭이름

• **안반데기** : 탐동2리에서 서쪽으로 12km떨어진 지점에 넓은 골이 있는데 그곳이 맥칠때 쓰는 안반처럼 넓고도 평평하게 생겼다 하여 '안반데기'라고 부르고 있다.

◎ 금수리(金水里)



금수리 마을전경

△ **위치** : 동쪽에 죽왕면 항목리, 서쪽으로 간촌리, 남쪽에 탐동리, 북쪽으로 하리, 신안리와 인접하고 있다.

△ **마을유래** : 금장동(金藏洞)이라 불러오다 군내면 당시 금장동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그 아랫골을 물이 흐른다고 물골, 수동으로 부르다가 두 이름의 머리자를 따서 1914년 3월 1일부터 금수리로 고쳐 부르고 있다. 1929년 4월에는 당시 일본인 조원(朝田)이

금수리 산129번지에 금이 저장된 줄 알고 2년간 금광을 찾아 금을 못 찾고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한다. 속명은 짐장골이다.

△ **가구 및 인구** : 가구는 총 85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40명, 여자 144명으로 모두 284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72가구, 경상도와 서울이 각각 4가구씩, 전라도 3가구, 충청도가 2가구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최씨가 25가구, 김씨가 16가구, 박씨가 11가구, 손씨와 안씨가 각각 3가구씩, 최씨와 鄭씨, 林씨, 張씨, 徐씨, 宋씨가 각각 2가구씩,朴씨와 韓씨, 南씨, 文씨, 黃씨, 趙씨, 劉씨, 方씨, 洪씨, 白씨, 陸씨, 高씨가 각각 1가구씩, 기타 3가구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24가구, 상업이 3가구, 기타 58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36ha, 밭이 8.9ha, 임야가 280ha이다. 농기계로는 경운기 23대, 트랙터 3대, 양수기 19대, 이앙기 16대, 동력예취기 2대, 분무기 21대, 콤팩트 1대 등

으로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편이다.

가축은 한우가 23두, 닭이 5수, 산양이 57두, 개가 80마리, 꿀벌 8군 등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비교적 빠른 1970년 12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2년 5월 비교적 늦게 개통되었으나 현재 72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89대, 냉장고 86대, 자가용 28대, 오토바이 22대, 비디오 38대, 세탁기 63대 등이 많이 보급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목재 또는 연탄에서 탈피해 LPG가스와 유류 보일러에 의존하고 있다. 마을내에는 가로·보안등이 모두 9개소가 있다.

마을회관은 1974년 6월에 총 3백19만원을 투자하여 전경 15평으로 신축 했다.

마을금고는 1965년 2월에 처음 자본금 30만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57가구가 가입한 상태로 자산액은 5백90만원에 이르고 있다.

종교는 불교가 6가구, 기독교가 5가구, 천주교가 3가구, 기타 6가구씩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4년 11월에 자부담 4백만원과 지원금 1백30만원을 들여 마을앞의 소하천 800m를 정비 했고, 1980년 3월에 자부담 2백만원과 지원액 6백만원으로 마을앞 40m의 교량을 가설했다. 1984년 3월에는 총사업비 4백99만원에 2백38만원의 지원을 받아 마을앞도로 200m를 시멘트로 포장했다. 1991년 4월 5천2백만원을 들여 급수천 제방 389m를 쌓기 했고, 1992년 9월 7백95만원을 들여 450mm출판 46m를 매설했다.

또한, 1992년 9월 1천6백40만원을 투자 마을안길 8.46a포장과 하수도 36m를 설치할 비롯 1992년 11월에는 2천5백30만원을 들여 소하천 축제공 215m와 호안공 521m를 개수했다.

1994년 4월에는 3천3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649m포장, 옹벽41.5m를 설치하는 한편 6월에는 8천4백7십9만원을 들여 소하천 170m 개수, 옹벽 340m를 설치했다.

△ 마을 특산물 : 감과 토종쌀을 재배하여 연3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 마을신앙 : 음력 1월 3일과 3월 3일 그리고 9월 9일 등 1년에 3회에 걸쳐 성황제를 지낸다.

“인간의 화복(禍福)을 가려내기 위하여 고민, 우물, 달뎌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래인(古來人)으로부터 학설, 철학, 자래신앙으로 대별하여 하도(河圖), 하마(河馬)와 천수운(天數運)에는 인간행복지주권(人間幸福之主權)을 속지어천(屬之於天)이라 하여 천신(天神)을 위하여야 행복이 도래하는 줄로 알고 높은 산에 석축제단(石築祭壇)을 모아 천제(天祭)를 올리는 것이 성황제(城隍祭)인데 본동(本洞)은 급수리 산64번지의 성황제단(城隍祭壇)에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하기(下記) 축문(祝文)으로 동민소원성취(洞民所願成就)를 말한다.”

城隍祭祀

國紀年 月 日 永遠者城隍依 諸事遂行感謝 尤而舊民自黨微 永遠者城隍 現出隨行盡忠誠
爲純粹人間 勤勉貯蓄 盡忠報國 孝行隣保 自利理他 爲利他自利 兩順風調 時和年豐 國泰民安
里民健康 病魔不侵 客地住居 所願成就 牛馬育畜 無病或長 惡事着草 木好事成珠玉
謹以酒果清酌補陳 虔告祗薦于城隍 尚饗

正 初 致 誠 祭

천제가 행복도래에 미비하여 락마지운(洛馬之運)에는 인간행복지주권(人間幸福之主權)을 속지어(屬之於) 지비(地秘)라 하여 산신, 지신, 묘터, 집터를 고르는 법에 치중하여 상기 제속 내용으로 1월 3일 금영리 산 73번지에 제단을 설정, 제사를 올린다.

앞으로 인간 천등 지운에는 인간행복 지주권을 속지어인심(屬之於人心)이라 하여 자기수양 자기 자작으로 치중되어 가고 있다.

△ 마을 세시풍속

- 1월 정초고사(正初告祀)
- 2월 15일 풍상제(風上祭)
- 3월 3일 성황제(城隍祭)
- 4월 8일 초파일제(初八日祭)
- 5월 단오제(端午祭)
- 6월 유두놀이
- 7월 칠석제(七夕祭)
- 8월 추석제(秋夕祭)
- 9월 구알제(九日祭)
- 10월 개천제(開天祭)
- 11월 동지제(冬至祭)
- 12월臘亨제(臘亨祭)

△ 회다지 노래

(가사내용) 예헤루 담구야 (후렴조)
이보쨌지 3년내에 아들을 나면은
참사람이 되어서 농사를 지면은
언제나 흥년이오 술세를 한다민
자리이타 배격하고 이타하고 자리하며
구국제민 어데갈가 인류구원 빠질건가.

딸을나면 열녀되어 용모단장 미인일세
 달가들자 너무많아 적덕봉사 골라내니
 그도또한 희박하네 천지중간 반풀중에
 인간가장 중하건만 무엇하고 하직했나
 이순간이 중하여서 역사평가 완연하네
 사람마다 스승만나 인간행로 바로찾아
 먼진생활 무엇이던가 건강관리 바로하여
 감로수가 무엇이던가 활명수와 생명수는
 수화기재 아니던가 촌음시경 누가몰라
 부귀공명 누가실어 이것모두 건강중에
 주체의식 있어야지 세상에는 사상도 많아
 우왕좌왕 하지말고 풍토좋은 우리나라
 머리뛰어난 조상들의 성현군자 너무많아
 하도신본 지나갔고 낙서물본 혼란중에
 천부인본 찾아내어 태평가를 불러보세.

△ 속칭이름

- 도골 : 마을 뒷골짜기
- 건넌들 : 마을앞 들판
- 천혜장 : 현재 공설운동장이 들어선 곳
- 땅골 : 성황당을 지나는 골짜기
- 참망골 : 망골 위쪽 골짜기
- 짐승골 : 짐승이 많이 살았다는 골짜기
- 진골 : 고성산 우측 골짜기
- 탄계논골 : 고성산 좌측 골짜기
- 진배기 : 고성산앞 조그마한 들판
- 덕세미골 : 고성산 중앙 골짜기
- 사승골재이 :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2km 떨어진 골짜기
- 부처골 : 불상이 있었던 골짜기
- 갑박재 : 금수리와 간촌리의 경계 산마루

△ 구전되어 오는 민요

- ① 천하태평가(天下泰平歌)

〈가사내용〉 권하태평 피리로다 천부철학 증명하네
 증명내용 어떠하뇨 인도민덕 발달되네
 천문지리 조응하여 만덕종국 한국이네
 민족자유 실현될때 국권독립 따라있네
 자유독립 급무중에 심덕밝힘 세일이네
 설비부족 근심마라 만국자진 환조있네
 이신사순 확실히면 천지신명 어김없네.

△ 마을 명승현황

•곽선생 시형태(郭先生 時亨泰) : 간성을 금수리 산 73번지에 있는 곽선생 묘소.

선생은 1889년부터 7년간 이 마을에서 한문서당선생으로 제자들을 교육하며 단신으로 생활하다 사망하여 그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고 후손들에게로 제사가 이어져오고 있는데 전통민제로 8월 16일에 시행하고 있다.

•폭포 : 고성산 남방 2km 지점에 남천 중심의 반석이 150m 정도의 양변으로 깔려 있는 중간에 4m 높이 폭포가 있다.

•냉천 : 금수리 산51전지 속칭 냉장터라는 곳에 있는 높이 30m, 폭 20m의 암반벽의 중간 1.5m 지점에서 용출되는 냉천은 수량이 풍부하여 하계철 특히 삼복에 많은 사람들이(대부분이 여자)목욕하면 만병통치라 하여 모여 드는데 고성산에서 약500m 정도 동방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금수리사지(高城金水里寺址) : 사지는 간성을 서남편에 자리하고 있는 고성산 정북편 제곡내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분지형태를 이루고 있어 아늑한 느낌을 준다. 현재 사지 주변은 아카시아, 밤나무, 소나무, 잣나무등이 서식하고 있고 지형이 계단식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절각지로 사용된 것 같다. 주변에서 화편과 토기편이 산전되고 있으나 건물과 관련된 초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 탑의 동편 20여m지점에 1기가 보이는데 크기는 106×88×20cm이다. <<조선보물고적자료>>에 의하면 사지의 이름은 수타사로 3층 석탑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찰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다만 1기의 석탑이 남아 있어서 이 곳이 사찰이 조성되었던 곳임을 웅변해주고 있다. 석탑은 4층 옥개석까지 남아 있는 점으로 보아 본래는 5층석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본지 2층기단에 5층 탑신을 올린 평면방형의 석탑으로 생각된다.

현재 기단부는 상층부(상대갑석, 상대중석)와 하층기단 갑석만이 남아 있다. 상대갑석부는 옥석괴임 받침을 조출하여 갑석과 일체로 처리 하였다. 많은 부분(주로 낙수면)이 박리되었다. 상대중석부는 탱주와 우주를 양각으로 조출하였다. 하층 기단갑석에는 4면에 모두 안상이 남아 있다. 탑신부는 현재 옥신 1개와 4개의 옥개석이 남아 있다. 현 1층 옥신은 옥석 받침부

의 4면에서 모두 5cm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최초전립시의 옥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황으로 보아 제2층의 옥신으로 추정된다. 현재 M1 소총의 총알이 그대로 박혀 있고 또 탄흔이 그대로 남아 있다. 1층 옥개석은 현재 남아 있는 옥신과 같은 확임을 확인하였다. 옥개석 부는 현재 4개가 남아 있는데 현재 복원된 비율이 맞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현 탑신 1층부가 1층이 아니고 2층정도 임을 감안 할 때 없어진 옥신및 개석 부분은 1층 부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옥개석의 층급 받침은 4개로 표시되어 있다. 현재 옥개석의 대부분은 모서리 부분이 깨어져 나갔다. 상륜부는 모두 멸실되었다. 탑의 현존 높이는 2.6m로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 1942,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문화재연구소, 1998, 문화유적총람

• 금수리 산성(高城金水里山城) : 이 산성유적은 간성읍 서남쪽 약 2km거리에 있는 고성산(297m)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이르는 길은 읍내에서 서남쪽으로 나있는 313번 郡道를 따라 탐동마을로 진입하다가 예비군 동원 훈련장에서 우측의 고성산으로 오르면 된다. 현재는 군사도로로 해발 약 250m정도까지는 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 성에 대한 문헌기록으로 일제시대 자료인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고성군 군내면 금영리 국유 금영리부락의 서남 약삼십정의 고성산정에 있음. 고성산성지 주위약삼백십육간(574m)일부에 석축이어도 대부분 지축불완전'이라 하였다. 《〈문화유적총람〉》상에는 '일명 고성산성이며 자연석 난층쌓기로 되었는데 "고성군 수성지"에 고려초 축성으로 주위 2565척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석축이 많이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은 정상부(9부능선)에 축성되어 있는 퇴모식 산성이다. 성 안쪽에는 동서길이 약 150m, 남북길이 약 200m 정도의 부정형의 넓은 평탄지가 있다. 넓이 약 10,000평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잔존 성벽은 20~50cm의 현무반암 화석을 이용하여 난층쌓기로 길이 60~70cm의 장대석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은 다음, 작은 돌로 뒤채움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정교하게 쌓은 것이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현재 산성의 거의 전부가 군작전지역 시설로 인해 대부분 파괴된 상태로 사용된 석재들이 경사면을 따라 흘러 내려 있다. 성의 남남서 지역에 높이 160cm, 길이가 10m정도의 벽체가 남아있고, 성벽 앞에는 기반부가 계단식으로 3단이 쌓여 있음이 확인된다. 성 동북쪽에도 성벽일부가 잔존하여 있는데, 길이 약 11m, 높이 4m이다. 또한 단면상으로 본 기반부의 넓이는 6.2m정도 된다. 아마도 동문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안쪽으로는 우물터도 남아 있다. 산성 내부와 성벽 바깥에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양의 기와조각과 토기편, 자기편이 흩어져 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산성에 대해 새로이 확인된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남쪽에는 문지에 활용되었던 압괴된 돌저구, 면석등이 남아

있다. 특히 돌저구, 연덕등은 이 지역이 현무반암지대이고 축성시 사용된 돌이 대부분 현무반암인데 비해 이 문지에 사용된 암석재는 모두 화강암이다. 이는 다른 곳에서 옮겨 왔음을 증명하여 준다. 방향으로 보았을 때 '남문지'라 생각된다. 또한 성의 남남서 지역에는 자연 암벽을 치석하여 호성을 만들고, 화강암을 치석하여 기단부를 조성한 유구들이 잘 남아 있다. 특징은 기단부를 10~20m씩 들여 팔면서 축성하였고 폐기물들을 활용하였다. (서문지역에서도 화강암 폐기돌과 장대석 기단이 확인된다) 이는 고구려 시대의 전형적인 축성방법이다. 이 유구 윗쪽에 있는 현재의 잔존 성벽은 고려시대에 보충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문화재연구소, 1998, 문화유적총람

• 수설제단 : 고성 공설운동장 외곽 남서쪽 산기슭에 푸른 소나무 42그루와 함께 제단이 만들어져 매년 9월 22일 수성문화제 전야제 때에 이곳에서 세례를 봉행해 군민화합과 번영, 안녕을 기원한다.

1991년 11월 군이 1천9백7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토성면 도원계곡에서 채집되어 이곳에 세워진 수성 수호신위비는 가로 210cm, 세로 298cm의 대리석 기단 위에 높이 310cm, 지름 170cm, 둘레 524cm의 자연석으로 비의 전면에 "수성수호신위(遼城守護神位)"라고 음각되어 있다.

◎ 진부리(陳富里)

△ 위치 : 동쪽에 홀2리, 서쪽과 남쪽으로 인제군, 북쪽으로는 장신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진부리 마을전경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39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45명과 여자 47명으로 모두 92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23가구, 서울이 9가구, 경기도가 6가구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손씨가 10가구,朴씨가 5가구,李씨가 4가구,崔씨와安, 손씨가 각각 3가구씩,韓씨와黃

씨,尹씨,林씨가 각각 2가구씩,孫씨와趙씨,朱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35가구, 상업이 4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밭이 30ha이고 농기구는 경운기가 35대, 트랙터가 2대, 기타 5대 등이다.

가축은 한우가 102두, 개가 31마리, 닭이 10수 등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83년에 12월에 들어 왔으며, 시내버스는 그보다 조금 빠른 1980년도에 개통되어 현재 하루 6회 왕복 운행하고 있다.

전화는 1979년 8월 비교적 빨리 개통돼 최근 통신시설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나 이제는 모두 39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41대, 냉장고 39대, 자가용 9대, 오토바이 7대외에도 비디오와 오디오, 세탁기 등이 많이 보급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많은 가구가 난방과 취사를 종전의 목재 또는 연탄에서 탈피해 가스와 유류보일러에 의존하고 있다.

마을내에는 가로·보안등이 모두 5개소가 있다.

종교는 불교 27가구, 기독교 12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1974년에는 총사업비 3백만원을 들여 16평의 현대식 마을회관을 신축했다.

1973년 10월에 처음 자본금 40만원으로 마을금고를 설립 했는데 1985년 20가구가 가입, 자산액이 9백만원이나 되었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1992년 10월에 낡은 외나무다리를 철거하고 6천9백만원을 들여 새로운 35m(폭 5m)의 진부교를 새로 가설했다.

△ **마을 특산물** : 특산물로는 재래봉, 당귀, 약초 등이 있는데 특히 재래봉은 대부분의 가구가 참여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 금취의 하우스재배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 **마을신앙** : 음력 3월 8일과 8월 14일로 일년에 두번 제당골 현장에서 지내는 산신제가 있다. 이때 마을 전체가 산신의 보호를 받아 일년내내 재앙없이 평안하고 풍년들기를 기원한다. 재물로 젓상을 마련하고 축문을 낭독한다.

△ **마을 세시풍속** : 매년 3월 3일에 삼월 삼신제와 산신제를 지내고 8월 14일에 두번째 산신제로 풍년을 빈다. 11월에는 동짓날 팔죽을 해먹고 나무를 하는 풍속이 있다.

△ **희다지 노래** : 옛날부터 구전되어 오는 마을의 희다지 노래

〈가사내용〉 애라 호리 달고, 애라 호리 달고, 애라 호리 달고.

이자리를 잡을 적에 어느 풍수 잡았단고 대한에서 재일가는 풍수를 잡았다네.

향로봉이 높이 솟아 이산이 명산이로다 향로봉에 주렴을 타고 내려와서이 자리가 되었네.

좌에는 청룡이요, 우에는 백호로다.

안난산 노적봉이요 이산 쓴지 3년만에 아들을 나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나면 효녀로다.

마을 가면 용마되고, 소을 나면 양떼로다,
달을 노면 봉이되고, 개를 노면 청사자리,
나쁜 사람 오면 끼거쟁 짓는 소리,

△ 산, 바위 등의 전설

• 칠절봉(七節峯) : 옛날 진부리에 노부모를 모시고 지극한 효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처녀가 있었는데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나이 많은 부모를 모시기 위해 시집을 못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친이 병들어 백약이 무효하고 병은 더욱 악화되어 죽게 되었을때 처녀의 꿈속에 산신이 나타나 병을 낫게하는 약초가 있는 곳을 알려 주고 사라졌다. 잠에서 깨어난 처녀는 그 길로 약초로 캐러 산으로 갔다.

그러나 처녀는 그길로 영영 돌아올 수 없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산에서 일곱토막의 시체로 발견 됐다. 이에 그 처녀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이산을 칠절봉(七節峯)이라고 불렀다.

• 용소 : 공병대골, 채지골에서 향로봉으로 올라가노라면 중턱 쯤에 용의 모습과 꼭 닮은 폭포가 있는데 옛날에 이곳에 용이 하늘로 승천하였다 하여 이 소를 용소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1980년에는 가뭄이 심하게 들어 6월에 고성군수 이하 각 기관장들이 이곳 용소에 올라 기우제를 지냈는데 3일만에 무수한 비가 내려 중년이 들은 일도 있었다.

• 진부리사지(陳富里寺址) : 마을 주민 김재하씨에 의하면 수년 전에 임으로 글씨를 쓰는 스님이 이곳에 사찰을 건립할 목적으로 장명등 및 근년에 조성된 사사자 3층석탑 1기를 옮겨 놓았다고 하나, 스님이 돌아가신 후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다고 한다. 연화문 대석(蓮花紋臺石)은 도괴된 장명등의 하부에 놓여 있으며, 대석은 직경 95cm, 높이 22cm의 8각형 규모로 전면에 판이 넓은 복연 8판의 복연이 장식되어 있다. 상면에 직경 66cm의 8각형 홈을 마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도나 불상의 하대석으로 추정된다. 조성 시기는 연화문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장명등(長明燈)은 전체적으로 8각형의 평면을 유지하고 있는데, 도괴되어 있지만 간주석, 화사석 및 옥개석을 모두 갖추고 있어 바로 세우면 환형으로 복원될 수 있다. 하대석에서 화사석과 옥개석이 각 1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높이는 144cm이다. 장명등은 원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으나, 각부의 양식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4사자 3층석탑은 근년에 조성된 것으로 높이는 3.6m이다.

【참고문헌】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문화재연구소, 1998, 문화유적총람

◎ 흘리(屹里)

△ 위치 : 동쪽에 선유실, 서쪽에 진부리, 남쪽에 진부리와 토성면 도원리에 각각 이웃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산림이 울창하고 산이 높다하여 홀리(岐里)라 불렀고 속칭 밖(外)홀리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마을의 면적이 광활하여 지역별로 구분할때 칭하던 이름으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

○ 홀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88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35명, 여자 107명으로 모두 242명 이다.



홀1리 마을전경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62가구,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8가구씩, 전라도 5가구 경상도가 4가구, 충청도가 1가구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손씨와 추씨가 각각 11가구씩, 홍씨가 9가구,朴씨와申씨가 각각 7가구씩,崔씨와 손씨가 5가구,宋씨가 4가구,韓씨와張씨,趙씨가 3가구씩,安씨와 劉씨가 각각 2가구씩,盧씨와 許씨,黃씨,呂씨,孟

씨,馬씨,吳씨,池씨,郭씨,方씨가 각각 1가구씩 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60가구, 상업이 16가구, 기타 12가구등으로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밭이 63ha, 일야가 94ha이다. 농기계로는 경운기 35대, 트랙터 22대, 분무기 36대, 기타 11대로 고냉지 채소 등을 재배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가축은 한우가 13두, 닭이 20수, 개가 18마리, 꿀벌 58군 등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비교적 빠른 1978년 2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9년 8월에 개통돼 최근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88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어 편리한 지리적 여건을 해소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92대, 냉장고 89대, 자가용 45대, 오토바이 9대의외에도 비디오와 디오, 세탁기 등이 많이 보급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난방과 취사는 중전의목재 또는 연탄에서 탈피해 LPG가스와 유류 보일러에 의존하고 있다. 마을내에는 가로·보안등이 모두 4개소가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45가구, 기독교 13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5년 7월에 총사업비 3백50만원을 들여 18평의 세멘비둘스라브로 신축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6년 4월에 마을앞에 10m의 교량을 총사업비 86만원을 들여 가설했고, 1983년 10월에는 흙3리에서 마을입구로 통하는 2km의 농로를 총사업비 5백79만원을 들여 개설했다.

△ **마을 특산물** : 마을의 모든 가구가 고냉지 채소와 토마토를 재배하여 연간 2억5천8백여 13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 **마을신앙** : 음력으로 3월과 8월의 첫번째 정일(丁日)이 되는 날, 마을의 산제당(産祭堂)에서 지내는 산신제가 있는데 이는 마을 전체가 산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마을에 재앙과 질병 없이 일년내내 평온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재물로 소머리와 과일을 차려 놓고 축문낭독을 시작으로 의식을 거행한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보름에는 달맞이와 훗날이를 즐기며 2월 1일과 3월3일에는 각각 영동제와 삼신제를 지낸다.

△ **회다지 노래** : 구전되어 오는 회다지의 가사내용

〈가사내용〉 향로봉 산맥이 뚝 떨어졌네, 애해야 달구야

이산 쓴지 3년만에 부귀영화 먼저오고 아들을 낳으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를 낳는다. 애헤라 달구야 애헤라 달구야.

좌청용 우백호 호안절경 이뤘으니 후손탄대 영화났네,

애해야 달구야 애해야 달구야.

△ **산, 바위, 나무 등의 전설**

• **마장(馬場)터** : 옛날 교통이 불편하여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에 영동과 영서지방을 통행하는 지름길로 고성군과 인제군의 경계지대를 마장터라 불렀다. 옛날에는 이곳에 주막이 있어 한양으로 시험을 보러가는 선비들이 말을 매어놓고 숙식을 하였고, 또 말을 타고 다니며 물물교환을 하던 상인들이 소로로 이용했다고 하여 그때부터 마장터라 칭하여 현재까지 전해 오고 있다.

해방전에는 이곳에 10여채의 가옥이 있었으나 현재는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 **선배미골** : 산과산 사이의 계곡을 따라 올라 가면서 눈을 개간했는데 이것을 다 끝내고 쉼하여 보니 폭 선(50)배미가 되었다 하여 그때부터 선배미골이라 했으며 이곳엔 지금도 5가구가 살고 있다.

• **정승골** : 구전에 의하면 옛날에 이 고을에서 정승이 살고갔다 하여 그후 정승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 **참봉골** : 옛날에 이 고을에 참봉이 살고간 이후 고을이름을 참봉골이라고 불렀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 전문은 아니지만 마을에 전해오는 민요의 가사

〈가사내용〉 이스를 달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
장가못간 노총각이 안달이 났구나,
앵이아노 아노야
여기어차 뱀노리 가잔다,
허궁충전에 쓴 구름은 비나 주자고 뱌지,
신작로 한복판에 뜬
저여자는 누굴 주자고 뱌나.

△ 마을 명승현황

• 김치원자혜불망비(金致元慈惠不忘碑) : 면장 함동석과 함께 1931년 흉년으로 인한 마을의 식량난을 해결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홀리 구장으로서 주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역시 1932년 주민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비의 전면에는 "구장김공치원지혜불망비(區長金公致元慈惠不忘碑)"라 새겼고, 그 좌우에는 "십재군무 숭상은하 채금선제 금화권업 신시황년 구기문한 가락군자 활야천구(十載勤務承上恩下採金先稅禁火勸業○是愼年敎訓開泰嘉樂君子活我千口)"라 적었다. 화강암을 사용한 이 비는 크기는 106cm×45cm×16cm이며 비갓은 없다.

【참고문헌】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고성군지〉》

• 나병규(羅炳奎)선생 공덕비 : 진부령 정상에서 알프스 리조트 방향으로 들어서 가다 콘도와 박물관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에 자리하였다. 화강암 제설에 비갓 없이 세운 이 비의 크기는 116cm×44cm×14cm이다. 일제 치하에서 이 지역의 청장년들에게 구학문과 신학문을 교육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컸던 나병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그 제자인 한도성(韓道成)을 비롯한 9인이 1939년에 건립하였다. 비의 전면에는 "나선생병규기념비(羅先生炳奎記念碑)"라 새겼고, 이 좌우에 "적심교육 단심성(赤心教育 丹心誠)"이라 하였으며, 비문 아래로는 제자들의 이름이 새겨 있다.

【참고문헌】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고성군지〉》: 문화재연구소, 1998, 문화유적총람

• 함동석공덕비(咸東錫功德碑) : 1907년경 천재로 홀리마을에 흉년이 들어 온 마을이 식량난을 극심하게 겪게 되자, 이에 당시 이장인 김치원의 보고를 받은 면장 함동석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마을의 실상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구호 양곡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구호미가 지원 됨으로서 극심한 식량난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면장 함동석의 적극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한 마을 주민들에 의해 공덕비가 건립되었다. 비 전면에는 "면장함동석식은비(面長咸公東錫施恩碑)"라 새겼고, 그 좌우로 "한곡출회 은산택해 구아궁면 모금아을

(寒谷春回恩山澤海口我國民募金移集)이라 명기되어 있다. 임신(壬申)(1932) 10월에 설립한 것을 밝히고 있다. 비각 없이 화강석을 사용하였고 크기는 99cm×216cm이다.

【참고문헌】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고성군지》·문화재연구소, 1998, 문화유적총람

△ **알프스스키장** : 1984년 5월 28일 자본금 6만원을 들여 북섬악개발회사(대표 김성균)를 창립 마산봉일대 개발에 나서 1986년 1월 30일 제13회 전국 초·중·고스키대회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스키장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곳은 기온이 낮고 설질이 좋아 스키장으로 최적지로 503,873m로 리프트가 5기가 있다.

○ 홀2리

△ **마을특징** : 해발 750~800m의 고냉지로 1966년 강원도의 지침에 따라 생겨난 실향민들이 임야를 땅으로 개간한 값싼 땅으로 그들은 반평생을 바친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홀2리 마을전경

있다. 현재는 개간 토지의 대금도 상환 중에 있으며 고냉지채소를 재배하여 최고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28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38명, 여자 32명으로 모두 70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9가구, 서울이 5가구, 경기도가 3가구, 경상도가 1가구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26가구,

상업이 2가구로 고냉지 채소 재배농가가 많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고산인 지형적인 영향으로 논은 없고 밭이 47ha이다. 농기계로는 청운기 26대, 기타가 5대 등이다.

가축은 한우가 56두, 개가 15마리, 닭 5수, 기타 15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비교적 빠른 1978년 2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9년 8월에 개통돼 최근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38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30대, 냉장고 28대, 차가운 25대, 오토바이 8대외에도 비디오와 오디오, 세탁기 등이 많이 보급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난방과 취사는 중전 압산연료와 연탄에서 탈피해 유류 보일러와 LPG가스를 이용하고 있다.

마을내 가로·보안등은 모두 3개소 있다.

종교현황으로는 불교가 25가구, 기독교가 3가구로 대부분의 주민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3년 4월에 총사업비 45만원으로 마을안 11m의 교량을 가설했다. 1975년 3월에는 총사업비 61만원으로 학교앞에서 마을까지 780m의 도로를 개설하는 한편 1993년 5월에는 1천9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300m를 포장했고 동년 9월에 4백80만원을 들여 폭관 15m와 맨홀을 설치했다.

△ 마을 특산물 : 마을의 모든 농가가 치커리, 고랭지채소, 달귀 등을 재배하여 연간 1억9백여만원 정도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에는 정월 초하루와 보름전날 오곡밥을 해 먹으며 즐겼고 3월에는 3월날 삼월삼신제를 지낸다. 그외에 사월초파일과 추석명절, 그리고 동짓날 팔죽을 해먹고 나무하기 등의 고유한 풍속이 있다.

△ 산, 바위, 나무 등의 전설

• 선돌(立石)바위 : 1960년경 이호빈(李浩彬)목사가 마을에 처음 들어와 교회를 건립 하였을때 그 교회의 뒷산에 서 있는 바위를 선돌이라 명하고 교회이름도 '선돌교회'라 했다.

• 마산(馬山) : 마을 뒷쪽에 있는 산으로 그 모양이 꼭 말의 형상을 닮았다 하여 마산(馬山)이라 부르고 있다.

△ 기타

• 씨업(氏業)학원 : 1960년 이윤구 선생이 서울의 대학생 30여명과 함께 벽지농촌의 계몽사업을 위하여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2년 동안 신학과 농촌계몽 등의 활동을 한 지역을 부르는 말로 현재까지 씨업학원이라 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동원농산 주(東園農産株) : 1975년 한우육성단지를 조성했는데 초지조성면적은 139ha이다. 1977년 한우 70두를 임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흠3리

△ 마을유래 : 흠3리에는 조쟁이라는 속칭이 있다. 조(朝)는 아침을 뜻하고 쟁(商)는 장사를 뜻하는데 구전에 의하면 옛날 물물교환이 성행할 당시 영동과 영서의 중간지점인 이곳에서 동해안의 특산물인 어물과 영서의 산물인 곡물과 산채등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장이 있었는데, 주로 아침에 장이 선다하여 조쟁이라 부르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30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36명과 여자가 33명으로 모두 69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0가구, 경기도 10가구, 전라도 6가구, 전라도 3가구, 충청



홀3리 마을전경

도가 1가구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4가구, 상업이 14가구, 기타 9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논이 없고 밭이 6.6ha, 임야가 34ha 이다. 농기계로는 경운기 4대, 트랙터가 1대 등이다.

가축은 개가 6마리, 꿀벌 6군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비교적 빠른 1978년 2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9년 8월에 개통돼 최근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28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32대, 냉장고 33대, 자가용 15대, 오토바이 7대외에도 비디오와 오디오, 세탁기 등이 많이 보급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난방과 취사는 종전 입산연료와 연탄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를 이용하고 있다.

마을내 가로·보안등은 모두 4개소 있다.

종교현황으로는 불교가 6가구, 기독교가 2가구, 천주교가 1가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1994년 5월에 5백2십만원을 들여 박공형 비스대기소 1동(5m)을 신축했다.

△ 마을 특산물 : 특산물로는 더덕과 고냉지채소를 재배하는데 더덕은 5가구 1.5ha에서 재배하여 연수입으로 2백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고냉지채소 또한 4가구 재배하여 연간 8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 마을신앙 : 음력 3월 3일날 재당굴 현지에서 지내는 산신제가 있는데 이때 온 마을의 번영과 소원성취, 풍년을 기원하며 돼지머리와 과일 등을 차려놓고 축문을 고한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에는 그해 정초의 명절을 즐기고 보름 하루전에는 여름날 오곡밥을 차려놓고 아침일찍 곤충해를 막는다는 뜻으로 부스럼을 깨문다. 삼월에는 3일날 산신제를 지내고 사월에는 석가탄일, 팔월에는 추석명절을 즐기며 동지에는 갈죽을 해 먹고 나무를 하는 풍습이 전해오고 있다.

△ 마을 명소현황

• 홀3리 3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냉천은 여름에는 손이 시리도록 차서 식수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온기가 날 정도로 따뜻하여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도 하겠다고 하며 아직까지 몇 세대는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 향로봉과 진부령 : 향로봉은 표고 1,293m로 고성군과 민세군, 회양군 등 3개군의 경계



국도 46호선 진부령 정상에 세워진 표석

를 점하고 있는데 신라시대에 가리라봉(迦里羅峰)라고 불리웠으며, 수성지의 기록에는 마기라산(麻耆羅山)라 기록되어 있고 큰 가뭄때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고 한다. 이산을 따라 이어지는 고진동계곡, 진부령계곡, 머내골, 세추골, 용추골 등은 풍광이 빼어나고 골짜기의 운무는 가히 선경에 이른다. 또 골짜기 마다 기암절벽이 극치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최근 학술조사에서

희귀한 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고성지방에서 영서쪽으로 통하는 관문은 진부령(陳富嶺)이다. 진부령은 수성지 기록에 의하면 “영서로 통하는 소로가 매우 험하고 좁아서 1632년(인조 10년, 壬申) 관에서 모집한 역승(役僧)이 처음 개통한 고개인데 통행이 적고 비교적 순탄한 길이어서 통행이 용이하나 겨울에는 눈으로 길이 막힌다”라고 적고 있다. 표고는 625m로 굉장히 높은 고개는 아니지만 진부령도로는 1981년 대통령령으로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되면서 44.6km도로에 대한 확장공사가 이루어져 이 지방의 농수산물 도식운송과 고성지방을 찾는 관광객의 주요이동도로 이용되고 있다.

진부령 정상에는 ‘진부령(陳富嶺)’의 표석이 세워져 있고 1957년 7월 15일 새운 향로봉지구전적 기념비(香爐峯地區戰蹟記念碑)가 있다. 비문의 개요는 1951년 3월 7일부터 그해 6월 9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국군이 중공군과 싸워 대승하여 마침내 설악산(雪嶽山)과 향로봉지구를 점령했다는 피어린 전적지임을 말해 주고 있는데 중공군의 불법 침입으로 이곳에서 꽃다운 젊은 청년들이 숨져간 것이다. 이들이 여기서 뿌린 피는 헛되지 아니하여 155마일 휴전선 지도를 보면 전 휴전선 중에서 가장 북상에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며 한치의 땅이라도 되찾아야겠다는 충성스런 발로가 고귀한 희생을 치렀던 곳이다. 이곳을 지나는 길은은 애국의 상징이 곧 여기에 있고 조국애에 대한 지룩한 정신의 상징임을 느껴 온것을 여미며 절허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할 것이다.

또 이 전적지 우측에 선화회생순국충혼비(雪禍犧牲殉國忠魂碑)가 있다. 이 고장은 옛부터 통고지설(通高之雪)이라 하여 유난히 눈이 많이 오는 곳이다. 1956년 2월 중순부터 3월초순까지 영동지방일대에 폭설이 내렸다. 그때 이곳 향로봉에서 전선을 지키는 우리국군 용사들이 참변을 당했으나 그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 이 비통하게 죽은 고인들의 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새운 비가 이곳에 있다. 그간 세월의 풍상으로 비석의 기단이 노후 훼손 뒤에 따라 1997년 일부 비석의 기단을 보수했다.

◎ 탑현리(塔峴里)

△ 문화 유적 (전봉사지)

- 전봉사지 목양당 영안대사지비(乾鳳寺址 牧羊堂 靈眼大師之碑)

비신의 크기 1.85m×81cm×34cm로서 이덕수(李德壽 1673~1744) 선(撰), 서명균(徐命均 1680~1745)서(書), 이징하(李徵夏)전(篆)인데 비좌는 묻혀있다. 조선 영조 7년(1731)에 세운 것이다.

- 전봉사지 운파대사비(乾鳳寺址 雲坡大師碑)

비신의 크기 1.8m×78cm×27.5cm 귀부(龜趺) 길이 2.26m 비두 크기 1.92m×1.33m×58cm인데 이의현(李宜顯 1669~1745) 선(撰), 홍득복(洪得福 1691~1767)서(書), 윤척기(俞拓基 1691~1767)전(篆)으로 조선 영조 6년(1730) 4월에 세운 것이다.

- 전봉사지 사적비(乾鳳寺址 事蹟碑)

비신의 크기 2.33m×90cm×39cm, 비두(碑頭) 높이 1.12m 폭 80cm, 귀부(龜趺) 길이 2.83m 높이 73cm이다. 이근명(李根命 1840~?) 선(撰), 민병석(閔丙錫 1858~1940)서(書), 정학교(丁學敎 1832~1914)전(篆)으로 조선 광무 10년(1906)에 세운 것이다.

- 전봉사지 연회비(乾鳳寺址 蓮會碑)

비신의 크기 1.83m×58.5cm×26cm, 비개(碑蓋) 크기 42.5cm×1.1m×68cm이며, 비좌(碑座)는 땅에 묻혀 크기를 알 수 없다. 조병필(趙秉弼 1835~1908)선(撰), 김가진(金嘉鎭 1846~1922)서(書), 정학교(丁學敎 1832~1914)전(篆)으로 조선 광무 8년(1904) 3월에 세운 것이다.

- 전봉사지 부도군(乾鳳寺址 浮屠碑)

일부는 사찰경내에서 떨어진 탑현리 쪽에 있는데 거의 도굴되어 계곡에 떨어져 있기도 하는데 100여기라고 전하며 1990년도에 1차정비로 현재 60여기의 부도가 있다.

- 전봉사지 벽오대종사비(乾鳳寺址 碧梧大宗師碑)

비신의 크기 1.84m×58cm×27.5cm, 여규(呂圭 1845~1922)선(撰), 이자영(李始榮 1882~1919)서(書), 전(篆)으로 조선 광무 8년(1904) 7월에 세운 것이다.

- 전봉사지 일암대사비(乾鳳寺址 日庵大師碑)

비신의 크기 1.52m×59.5cm×18cm, 김상숙(金相肅 조선 영조때 인물)서(書)인데 선(撰)과 전(篆)을 한 사람의 성명을 고의로 꺾어버려 알 수 없는데 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致仕奉

朝賀○○○撰并篆”으로 불대 어찌면 사화(士禍)에 희생된 인물로 추정한다. 조선 영조 46년(1770)에 세운 것이다.

• 전봉사지 만화당 대선사비(乾鳳寺址 萬化堂大禪師碑)

비신의 크기 1.83m×61.5cm×34.5cm, 비개(碑蓋) 크기 47cm×99cm×70cm이며, 김희구(金喜求 1867~1926)선(撰), 김돈희(金敦熙 1871~1936)서(書), 전(篆)으로 1924년 6월에 세운 것이다.

• 전봉사지 능허당 대선사기념비(乾鳳寺址 凌虛堂大禪師紀念碑) 비신의 크기 1.39m×51.5cm×21.5cm이며 1928년에 세운 것인데 전봉사 사적에 1919년 극락암 도량 축석과 1920년 불이문 건립, 문수교(文殊橋) 가설, 산영교(山映橋) 개수때 힘 쓴 공을 기념한 것이다. 1928년에 세웠다.